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6월 16일)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인도만행결사 준비위원회는 7월 27~30일 공주 태화산 일원서 예비순례를 진행했다. 사진은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참가 대중들이 순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걸음마다 '불교 중흥' 원력 담아…

7월 27~30일 공주 태화산서 예비순례 진행

3일 간 매일 도보로 30km 순례
출재가 순례단 110명 감동 · 환희
원행 스님 "결사 의미 이어지길"
자승 스님 "각자 역할이 곧 원력"
2차 예비순례, 10월 7~27일 예정

공주=송지희 · 노덕현 기자

부처님 숨결 따라 도보로 인도를 순례하는 위례 상월선원의 인도만행결사를 앞두고 예비 순례자들이 공주 태화산 일대에서 원력을 모았다. 인도만행결사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뜻과 의미를 계승해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두 번째 결사다. 인도만행결사 준비위원회는 이번 공주 예비순례에서 결사의 의지를 다진데 이어,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대구 동화사서 서울 봉은사까지 1차 예비순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도만행결사 준비위원회는 7월 27부터 7월 30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공주 예비순례를 진행했다. 첫날 입재식에서 사회를 맡은 상월선원 총도감 호산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좌선정진이었다면 두 번째 인도만행결사는 행선정진"이라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수행원력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예비순례 역시 다르지 않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날 입재식은 만행의 의미와 원력을 모으고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부터 인도만행결사까지 주축이 된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결사 대중 외에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종회의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을 비롯해 전국 15곳 교구본사와 주요사찰 주지 스님 등이 격려를 위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선원 결사의 정신이 인도만행결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수행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시는 상월선원 결사대중 스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원만회향을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공주 예비순례는 입재일과 회향일을 제외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4시부터 한국문화연수원 인근 태화산 일대를 30km씩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예비순례 일정까지 축소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결사라는 점에서 순례에 임하는 참가자들의 원력만큼은 단단했다.

순례 참가자는 모두 110명. 자원봉사자 스텝을 제외하면 스님 58여 명과 재가자19명 등 76명이 4박5일간 걷기순례에 나섰다. 동참자는 비구, 비구니 스님, 재가자 등 분류에 따라 6개 조로 나눴다.

참가자들은 매일 새벽 3시30분 기상해 3시40분 아침예불 후부터 아침공양 시간까지 걷고, 공양 후 잠시간의 휴식 후 다시 길을 나섰다. 코스는 날씨와 상황에 따라 매일 조금씩 달라졌지만 최소 30km 이상, 많을 때는 35km까지 걷기도 했다. 오후 무렵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각기 숙소에서 쌓인 피로와 상처 등을 치료하고, 때론 자자의 시간을 통해 원력과 의미를 나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례단의 얼굴은 신심과 환희심으로 맑게 빛났지만, 체력 저하로 인한 환자들도 속출했다. 발톱이 빠질 위기에서 응급차로 이송된 스님, 맨발로 아스팔트를 걷다가 엉망이 된 발바닥에 고통 받거나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완주를 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순례자들은 저마다의 원력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고, 그것이 곧 나와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과정 그 자체임을 체득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마지막날인 7월 30일 예비순례 회향을 겸한 자자의 시간을 빌어, 상월선원을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결사의 참의미와 불교중흥을 향한 간절한 서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수행과 전법의 원력이 죽음을 불사할 만큼 간절해야 불교의 미래가 있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임하면 불교 중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 만행결사는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이어 인도 7대 성지를 도보로 순례하겠다는 원력에서 출발했다. 45년간 길 위에서 수행, 전법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 초심으로 돌아가 탈종교시대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중흥의 토대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애초 올 11월 사부대중과 함께 순례단을 구성, 인도 1050km를 도보로 걷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특집 2 · 3면〉

"천지TV 사과없이 책임 전가 '유감'"

통도사 7월 31일 공식 입장문 발표
해당 영상 삭제… 모니터링은 지속

천지일보 산하 천지TV가 문제가 된 '신앙의 노정 담은 천년고찰 통도사'를 삭제했다. 하지만 통도사가 요구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도사(주지 현문)가 7월 31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천지TV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도사는 입장문에서 "지난 7월 16일 사중에서 확인한 촬영물을 보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계약 취지와는 달리 통도사 또는 조계종 소유 명칭 · 이미지 · 브랜드를 자신들의 교리를 소개하는 데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통도사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위반사항에 대해 '계약 위반 사항 및 계약 해지 통지'를 7월 21일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7월 29일 천지일보와 천지TV는 언론보도와 공문을 통해 통도사의 입장에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불교와 기독교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통도사는 "기독교 교리와 비교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바 없다"면서 "사전에 알았다면 통도사는 촬영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영상 첫 댓글에 '이 영상은 천지TV 이상면 대표의 개인적 소견을 담았다'는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해서도 통도사 측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도사는 "이는 천지일보와 천지TV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영상 대부분이 이상면 대표의 설명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점에서 볼 때, 영상에 대한 촬영주체로서의 관리와 심의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영상 삭제에 대해서 통도사는 "계약 위반의 책임과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아무런 사과표명이 없는 점에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통도사 측은 "'제작 의도와 달리 일각에서 본 영상을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영상 삭제의 이유는 촬영영상물 자체에 대한 계약상의 문제를 비롯한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한 통도사의 입장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발생한 종교 갈등의 이유를 불교계와 언론에 돌리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통도사는 불교계 및 불교언론과 함께 천지일보 · 천지TV의 제작 영상에 대한 관심 있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불교교리와 문화를 왜곡 · 폄훼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벌어질 경우, 이번 사건과 더불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도사는 7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지일보와 천지일보 산하 천지TV가 사전 취재 계약과 달리 자의적으로 방송 편집해 불교와 스님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도사 측은 "천지일보가 계약서에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명시했지만, 천지TV가 게재한 영상에는 기독교 교리의 숨은 의미를 통도사를 이용해 교묘히 풀어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도 공분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조계종 종평위)은 7월 29일 '천지TV의 불교모욕 행위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종평위는 위원장 도심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천지TV의 '신앙의 노정 담은 천년고찰 통도사'는 표면적으로는 통도사 방문을 통한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인 듯 제목을 정했으나 그 내용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성소인 불보사찰 통도사를 '신으로 가는 신앙과정' 정도로 폄훼하는 악의적인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동영상 전체의 시각은 모든 종교는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정신착란적인 자세"라고 힐난했다.

이어 "1800년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신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성소에서 불교를 폄훼하는 등 매우 교묘하고 악질적인 모습으로 종교간 극한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천지TV 측에 동영상 삭제와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천지TV 측은 입장문을 게재하고 7월 30일 오전 7시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신성민 · 하성미 기자

하계휴가 관계로 다음 주 신문은 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9월 10일(목) ~ 9월 12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점심제공〉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주 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생활 속에서의 주인공 관법 수행
▶승려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전문성 향상
▶포교현장에서 실질적 활용 방안

1일차 (9월 10일 목)	2일차 (9월 11일 금)	3일차 (9월 12일 토)
마음치유와 수행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현대인의 마음공부	현대인을 위한 포교	
	내 마음의 용광로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제33기 모집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 놓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대 상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일 정 2020년 10월 10일(토) ~ 12월 12일(토) 총10주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모집인원 총50명(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진화'를 검색)
문 의 031-470-3200, 3201

이모저모

결사대중이 오로지 걷는 수행 만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었다. 새벽 3시 30분 출발시간에 맞춰 사실상 밤을 새워가며 준비를 해 온 이들이다.

수차례의 사전답사와 회의가 진행됐고, 6개 조마다 조장이, 운영지원팀과 순례팀, 의료팀 등의 지원이 있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송현석 기자



순례 핵심은 '걷기'

준비운동 | 인도만행결사에 앞서 열린 태화산 예비순례의 핵심은 걷기다. 매일 30여 km이상의 거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잘 걷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 걷기 운동 전문가인 성기홍 바이탈식스랩 대표가 순례의 베이스캠프인 한국문화연수원을 찾아 잘 걷는 법과 걷기 전 준비운동을 가르쳤다.

이와 함께 매일 아침마다 출발전 몸풀기 준비운동을 진행됐다.



결사대중 발, 우리가 책임

의료 | 행렬 후미에는 김명숙 의료팀장을 포함한 동국대 일산병원 응급의료팀이 타고 있는 앰뷸런스가 항상 대기 중이었다. 발에 생기는 물집부터 풀벌레에 쏘여 생긴 두드러기, 체력이 떨어져 생기는 각종 낙상, 골절사고 등을 치료했다.

잦은 기상변화 속에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고 대중들 속으로 앰뷸런스는 즉각 달렸다.

"간절한 원력, 불교중흥 이끈다"

자승 스님, 태화산 예비순례 회향서 역설

태화산=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30일 태화산 예비순례 회향을 겸한 자자의 자리에서 불교중흥에 간절함의 필요성과 불교 각 분야서의 원력결집을 역설했다. 또 태화산 예비순례에 대한 평가와 2차 예비순례에 치열하게 임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자승 스님은 "자자를 시작하기 전 조계사에서 피자 대중공양을 올렸다. 이 피자를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8개월 전 상월선원 안에서 먹었던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때는 피자가 정말 맛있어서 퍽퍽한 끝 부분의 밀가루가 단맛이 날 때까지 꼭꼭 씹어 먹은 기억이 난다. 오늘보니 토핑이 올려진 부분만 먹는 것을 봤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피자가 아무리 맛있어도 다 먹어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간절하지 않으면 원력과 신심이 나오지 않는다"고 대중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 중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학인은 학인 위치서 열심히 하면 된다. 학인이 다른 것을 하니 중흥이라는 말이 나온다. 교수가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면 중흥이란 말이 나올 리가 없다"며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임하면 중흥이라는 말이 굳이 왜 필요하겠는가. 선방 수좌가 엉덩이가 썩어 문드러져도 도를 깨치겠단 원력이 있고, 기도하는 스님이 목젖이 터져도 내 기도를 듣는 이가 기도성취를 하게 해주겠다는 원력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스님은 불교가 살기 위해서는 절실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포교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으면 차라리 길에서 죽겠다 하면 중흥 불사라는 말을 꺼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원력이 부족하다"며

"원력있다면 '중흥' 말 필요 없어"

"이번엔 걷기 맛보기" 엄격 평가

2차 예비순례 '인도 상황 그대로'

"불교단체, 종립학교 임직원, 이판과 사판을 통틀어 모든 스님들 중 수행과 전법으로 마치지 않으면 죽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불교 중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1차 예비순례에 대한 자승 스님의 평가는 참가대중들과 달리 엄격했다. 스님은 "이번 예비순례 3일간 만행결사는 걷는 것을 빼고는 7성급 호텔에서 지낸 가장 호화로운 결사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하며 "2차 만행결사는 인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 3일은 걷는 것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체험하기 위한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30일 회향식을 겸한 자자의 자리에서 이번 순례에 대한 소회를 전하고 있다.

이어 스님은 예비순례서 빠르게 걸어 힘들었다는 일부 대중들의 목소리에 대해 "빠르다고 무전이 왔는데 평소 걷는 패턴대로 가겠다고 했다. '내가 인도에서 45일은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번 순례로 많은 이들이 걷는 것을 가벼이 여겼다는 생각과 체력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틈나는 대로 걷지 않으면 45일간 인도서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인도만행결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대중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불교 중흥의 원력이 될 것이다. 꼭 그런 원력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3박 4일간 너무나 애쓰고 고생했다. 21일 기도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7월 28일 첫 일정 후 대중과의 만남서 울컥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가 내적으로는 어려운 역경을 수행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외적으로는 언론들이 침체된 불교의 새로운 신심과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결사대중 "만행결사, 불교와 삶 바꿀 기회"

자자서 신심 · 원력 · 감사 표현해

7월 30일 태화산 예비순례 회향에 앞선 자자(自恣)서는 사부대중의 예비순례를 마친 소감과 함께 불교 중흥에 대한 신심과 원력, 그리고 예비순례를 비롯해 만행결사에 대한 감사로 채워졌다.

먼저 스님들은 불교중흥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천막결사에서의 정진과 함께 제2의 상월선원 결사를 준비하는 예비순례를 이어가는 등 실천행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실천이 대중에 각인되면 불교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총도감인 혜일 스님은 "회주 스님은 자비, 하심, 봉사 등을 강조하셨다. 불교를 대중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10월 국내 순례에 보다 많은 대중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행문화의 변화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템플스테이 전문위원 하원 스님은 "미얀마 등 남방불교에서의 수행을 경험하고 한국불교 수행을 봤을 때 아쉬움이 있었다. 만행결사는 새로운 한국불교의 수행 풍토를 만들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템플스테이와 걷기, 순례를 묶어 개발하는 화두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자자에서 대중들이 기립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 자자는 결사 의지를 북돋는 계기가 됐다.

문화부장 오심 스님도 "인연이 된다면 2차 예비순례도 가고 인도서도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걸을 예정"이라며 "수미산에 가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삼보일배를 하는 것을 보고 펑펑 운적이 있다. 불교중흥을 위해 한번 사는 인생, 멋진 수행 하다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회의원 현민 스님은 "앞선 스님의 신발이 이번 순례에서 스승이 됐고, 기자들이 땀을 흘리며 뛰는 모습에 부끄러워 꾀를 부리지 못했다"며 "운동한 시간이 많지 않아 자신이 없었는데, 따라하니 참 행복했다. 이번 결사가 스스로를 바꾸고, 불교를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기회가 사부대중 모두에게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비구니 스님 중 가장 세납이 높은 정혜 스님은 "정진에 대한 새로운 계기에 나이가 들어 꾀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걸음에 오게 됐다. 각계각층에서 불교를 위해 일하는 우바새 우바이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맞게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가자들은 이번 예비순례의 계기를 만들어 준 자승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에 대한 감사와 이어지는 순례에 대한 동참의지를 북돋았다.

재가자 대표 정충래 동국대 이사는 "한국불교 중흥이란 역사적인 결사에 재가자들의 동참을 열어준 회주 스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재가자들과 함께 길동무가 되어 준 스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인도만행결사에서도 사부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날을 그려본다"고 말했다.

대불련 간사인 라원준 씨는 "절실히 발원한다면 이뤄지는 것이 있다.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의 발원으로 좋은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삶을 살겠다."며 "청년불자들의 동참에도 밑거름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해에서 온 백금석 씨는 "원력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차 걷다보니 어느새 끝나 있었다. 사부대중이 함께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온 김정숙 씨는 "엄청난 폭우가 시험했지만,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떼다보니 아픔과 통증도 사라지고 걷는 것만 남았다. 언제 비가오는 날 대중과 함께 이렇게 걸을까"라며 "아이들에게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순간을 잘 살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보장된다고 말하곤 한다. 우리 모두가 순간을 잘 살면 불교 중흥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석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바라보는 많은 불자들이 있다. 한국불교 변화를 바라는 불자들이 많은 감흥을 받고 있다. 오늘 이런 것들이 한국불교의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PHOTO 태화산 예비순례



인도만행결사 예비순례가 공주 태화산 일원에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더위와 폭우에도 순례 참가 대중은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순례를 마쳤다. 불교중흥을 위해 걸었던 3일 간의 시간들을 렌즈에 담았다. 사진=박재완 · 송현석 기자

입재식



인도만행결사 예비순례가 열리기 하루 전인 7월 27일 봉행된 입재식에서 참가대중이 삼귀의례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예비순례 입재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가대중을 격려하고 있다.

첫째날



만행결사 예비순례를 시작한 대중들. 새벽 3시 30분에 기상해 하루 30여km를 걸었다.



첫날 순례를 마친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중들 신심 '감동'… 참회하며 걷다

노덕현 기자의 '결사 동참기'

'결사 동참'의 마음준비 없이
무작정 따라나선 순례 '반성'
첫날부터 물집 잡혀 고생길
함께 한 도반 도움으로 극복


만행결사 예비순례 도중 쉬고 있는 본지 노덕현 기자(왼쪽 두번째)와 스님들.

'부처님 성지 결사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마음가짐부터…'

태화산 예비순례 마지막 날 빗줄기가 그치고 마곡사 해탈문을 지날 때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다. 그동안 '기자'라는 허울에 싸여, '취재'라는 핑계대기 좋은 구실로 인해 '결사'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인도만행결사는 '결사'다. 그동안 부처님 8대 성지를 관광, 혹은 단순한 성지순례로 찾는 것에서 부처님 발자취를 따르는 수행운동으로 전환하고 그로 인한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를 바꿔보자는 현대판 불교개혁 불사다.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잘못됐다고 느낀 것은 태화산 예비순례가 진행되는 한국문화연수원에 도착한지 얼마되지 않아서였다. 입구부터 늘어서서 결사에 임하는 서약서를 쓰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보며 '아! 내가 안일했던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물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그 준비가 외형적인 것에 있었다는 데 있었다. '100여 명이 걷는다', '새벽부터 걷는다' '비오는데 걷는다' 관심은 오로지 '걷는다'에 맞춰져 있었다. 결사가 걷기대회가 아님에도 마치 걷기대회를 취재하듯 준비를 시작했다. 매일 걷기를 연습하고, 걷는 데 편한 아웃도어 용품을 사는 데 집중했다.

인도 현지에서 함께 정진하는 다른 대중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원활한 취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그것보다 '불교계 언론'이라는 결사의 한 구성축으로 '어떻게 기사와 영상을 보는 불자, 혹은 일반시민들이 신심을 더 내게 할 수 있을까'란 치열한 취재준비가 필요했다.

처음 인도만행결사를 제안한 자승 스님은 부처님이 당시에 걸었듯 맨발로 순례를 하겠다고까지 말했다. 파상풍 등의 위험으로 주변에서 만류하여 무산됐지만 왜 그런 의견까지 냈을까를 생각하면 한 명의 기자이면서 한 명의 결사대중이 되어야 했다.

무거운 마음을 덜어준 것은 바로 동참기 취재 과정에서 본 결사대중들의 모습이었다. 3박 4일 동안 결사대중이 보인 것들은 함께 걷느라 지친 몸과 달리 신심은 더욱 차오르게 했다. 7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용맹정진'이 무엇인지를 길 위에서 보여준 호계원장 스님은 비교적 젊은 나이를 자신감으로 삼았던 기자가 한걸음 더 걷고 뛰게 만들었다.

정말 목이 마를 때 먹으려고 배낭에 넣어 놓은 오이를 마지막 갈딱고개에서 기자에게 건넨 스님, 첫날 물집이 많이 잡혔다는 말에 본인의 발가락 양말을 선뜻 건네준 보살님은 대중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했다.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우의 하나 걸치고 10여 시간 길 안내를 맡은 봉은사와 조계사 종무원들, 새벽 1시 반부터 식사를 준비해 어두운 농로를 달려 결사 대중에게 공양을 전한 한국문화연수원 직원들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이러한 원력이 기자의 마음에서 하나로 모이자 거짓말처럼 셋째날에는 물집으로 인한 발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걸으면 걸을수록 힘이 났다. 마곡사 경내로 들어서자 30여km를 걸어온 다리를 끌고 더 좋은 사진과 영상을 위한 뜀박질조차 가능했다.

기자들은 이번 예비순례에서 자자(自恣)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결사대중의 '취재'를 위한 배려인지, 기자답게 글로 하라는 큰 그림인지 이렇게 체험기를 통해 참여하지 못한 자자를 대신한다. 그리고 결사대중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음 순례에는 '무작정 간 후회막심 체험기'가 아닌 '작정하고 간 발심 동참기'로 찾아뵙길 다시 한번 마음 먹어본다.

공주 태화산=노덕현 기자

결사 대중에게 듣다

만행결사의 첫 발이 드디어 내딛어졌다.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의 태화산 예비순례를 통해서다. 인도 만행결사라는 대장정의 시작점에서 대중은 무엇을 느꼈는지 들어봤다. 정리=노덕현 기자

"가행정진 기회 마련해줘 감사"

최고령 참가자 **무상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최고령 참가자인 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이번 순례에 대해 "가행정진의 꿈을 이루는 첫 발"이라고 평가했다. "젊어서 해인사 선방서 용맹정진할 때를 떠올리곤 한다"는 스님은 마음 속 이판승으로의 꿈, 그리고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에 대한 꿈을 함께하게 해준 결사대중에게 감사를 표했다.

"처철마다 선방에서 느낀 희열을 다시 느낍니다. 다행히 큰탈없이 주위의 도반 스님들 도움으로 잘 마칩니다."

스님은 "만약 종단에서 소임을 보지 않았다면 동안거에 상월선원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며 "인도성지순례도 여러 차례 갔지만 그때는 차로 다녀 인도만행결사 소식을 듣고 무조건 간다고 마음을 먹었다. 무엇보다 후배들 정진에 방해되지 않고 어려운 불교에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결사에 작은 걸음 보탰으면"

최연소 참가자 **백준엽 씨**



24살의 나이지만 만행결사에 임하는 자세는 누구보다 진지했다.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2학년인 백준엽 씨는 "상월선원 결사가 지치고 힘든 저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선사했듯, 만행결사 또한 불자대중이 함께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예비순례에서 준비는 했지만 다소 힘든 과정이었다. 하지만 태화산에 인드라망이 펼쳐진 것처럼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 원만 회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백 씨는 경북대가 위치한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며 고립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백 씨는 "정서적인 압박감에 포기하고 휴학을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 때 상월선원 스님들이 전한 울림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부처님 걸은 길을 따라 걷는 스님들의 발걸음에 제가 잘 할 수 있는 '오래걷기'로 작은 걸음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불교에 좋은 인식 갖는 계기"

가톨릭 신자 **이태경 씨**



이태경 씨는 이번 만행결사 태화산 예비순례에서 이른바 '마리아 보살'이라고 불렸다. 온 가족이 가톨릭 신자인 이 씨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지인과 함께 우연히 방문하며 불교수행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추운 겨울 천막 법당서 정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가르침이 뭐길래,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궁금했지요." 이 씨는 이번 예비순례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이 씨는 "스님들이 대중들과 함께 걸으며 이끌어주는 모습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자연 속을 걷는 가운데 그 안에 우리 전통인 사찰과 불교가 자리하고 있음에 불교에 대한 친숙함도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가족신앙인 가톨릭을 저버릴 순 없지만 불교에 대한 애정도 높아졌다는 이 씨는 스스로를 가톨릭 신자이면서 불자라고도 했다.

"다음에도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겠습니다."

"순례단 상처투성이 발에 뭉클"

김명숙 동국대일산병원 수간호사



"하늘에서 내리는 장맛비가 마치 법비처럼 느껴졌어요. 물집잡히고 부르튼 순례단의 발을 치료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의료팀 스텝으로 참석한 김명숙 동국대일산병원 건진운영팀 수간호사는 공주 예비순례에서 받은 감동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3일 간 90km 이상을 걸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발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였다.

김 수간호사가 묵는 숙소는 의무실이 됐고 순례 일정 이후에는 치료를 받으러 오는 이들로 북적였다.

김 수간호사는 "구급차를 타고 순례단 후미에서 폭우를 뚫고 묵묵히 걷는 분들의 뒤를 따랐고 일정이 끝난 후에는 그분들의 발을 보며 뭉클했다"며 "이번 순례의 최종 목표는 인도만행결사지만 이번 3일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또하나의 여정임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상월선원의 인도만행결사에 결사에 앞서 진행된 태화산 예비순례에서 순례대중은 3일 동안 총 108km를 걸었다. 사부대중은 어두운 새벽길을 시작으로 엄숙한 순례를 시작했다. 해탈문을 지나 산능선을 오르고 마을길을 지나고 논밭길과 다리 위를 걸으며 결사의 의미와 성불의 서원을 되새겼다.

둘째날


급격한 기상악화로 걷기는 어려웠지만 참가대중의 원력은 폭우를 뚫었다.


중간중간 휴식마다 서로를 격려해주는 참가대중들의 모습.

셋째날


순례의 핵심은 발. 휴식시간 발을 높은 곳에 두고 말리는 모습.


3일간의 순례를 마친 대중들이 동그랗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모저모



새벽 1시 30분의 밥짓기

배식 | 결사대중은 아침과 점심을 길 위에서 해결했다. 이들을 위해 새벽 1시 30분부터 밥짓기는 시작됐고, 2시 30분 어두운 농로를 거쳐 한국문화연수원 직원들로 구성된 배식팀이 텐트를 치고 배식을 위해 준비했다.



뒤에 차량 2대 옵니다

안전 | A와 B그룹으로 나뉜 행렬의 앞뒤에는 박기련 동국대 법인사무처장과 나인성 대승마야투어 이사, 윤승헌 동국대 대외협력과장 등이 있었다. 결사대중과 30여km를 걷는 가운데서도 앞의 선두차량과 후미차량을 조율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했다.



어둠 속 안전봉 든 길잡이들

안내 | 교차로마다에는 안전띠와 안전봉을 든 장영욱 종무실장, 남궁강 행정관, 정웅채 사무관 등을 비롯한 봉은사 종무원들과 조계사 종무원들이 있었다. 폭우 속에서 수시간 교차로에서 대중을 기다리고 다시 다음 교차로로 묵묵히 이동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前 총무원장 구속 후 법화종 내홍 '몸살'

총무원 · 중앙종회 대립 심화 '악화일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 1월 현직 총무원장이 법정구속되는 등 초유의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법화종이 이후 사태 수습은 커녕 심각한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무원장 구속으로 궐석이 된 총무원장 서리에 前 감찰부장 진우 스님이 임명됐지만, 최근 법화종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 주지에 폭행 등 전과 의혹이 있는 A스님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종단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서리 불신임을 결의하는 등 사태는 점점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법화종 사태의 발단은 올해 1월 9일, 법화종 총무원장이던 도성 스님이 공찰인 교헌사 주지 임명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법정구속되면서부터다. 당시 도성 스님은 10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즉각 항소했지만 4월 9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법화종은 현직 총무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법화종 종법 제2장 '종무직원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집행유예나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종무직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으며, 재임 중 이에 해당된 때는 당연 해임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도성 스님의 총무원장 임기는 올 10월까지로, 직무대행 혹은 서리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시급히 총무원장 선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법화종은 도성 스님의 법정구속 이후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종단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종정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에 前 감찰부장 진우 스님을 임명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진우 스님은 前 총무원장 구속 당시 집행부 임원으로 공찰인 교헌사 주지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수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가, 겸직금지 위반과 학력미달 등 자격논란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종은 1991년 11월 종헌종법 개정 이후 승려의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자 또는 고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중학교 졸업 여부가 확실치 않으며 현재 강원교구 종무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법화종 중앙종회, 6월 18일
총무원장 서리 불신임 결의
주지 임명시 배임수재 의혹

종회의원 5명 공권정지 징계
총무원 "종무행정 마비 해종"
"종단 정상화 요원" 우려 확산

진우 스님이 지난 6월 10일 서리 권한으로 안정사 주지를 새로 임명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해당 스님은 과거 강간치상과 폭력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주지 임명 후 2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6월 16일 교구종무원장회의 중 확인되면서 '배임수재' 의혹이 제기됐다.

여러 의혹에 대해 서리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서리는 종정 스님의 교시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학력 등 자격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또 안정사 주지 임명은 집행부 임원회의에서 2억원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성)논란이 있었지만, 변호사 입회 하에 정식절차를 거쳐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억원은 주지 임명 이틀 뒤 통장에 입금됐다고 진우 스님은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화종 중앙종회는 6월 18일 제104차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결의했다. 불심임 사유는 △이력서 허위기재(공문서 위조) △겸직금지 위반(강원교구 종무원장) △중앙종회 해산 모의 및 기도 △중앙종회 회의 방해 및 모욕 △중앙종회 종무행정 감사 거부 및 회계감사 지시사항 미이행 △종단 법령집 배부시 종헌종법 위조 △이중승적자 총무원 임원 임명 △종단발전기금 명목으로 총본산 안정사 주지 대가성 임명 △서울 성북구 총무원 청사 매각에 따른 회계보고 거부 등 9개 항목이다.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은 또 불신임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원에 진우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진우 스님을 안정사 주지 임명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 2억원을 비롯, 법화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향후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측도 7월 15일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스님들에 대해 체탈도첩과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내리는 등 맞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총무원측은 징계사유에 대해 "종단 기강을 무너뜨리고 종무행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해종 행위를 했다"고 밝혔지만 징계를 받은 의원 스님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스님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유추할 때,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구속 이후 '비상종단 정상화와 발전 개선방안' 보고서를 종정 스님에게 제출한 것과 종회 회의를 총무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행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종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종법에 저촉되는 사안도 아니다"며 "중앙종회 보고서는 총무원장 법정 구속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적용되는 종헌종법 규정 및 법률자문과 향후 대책방안으로 구성됐고 종법상 종회 장소도 종회의원 동의로 변경 가능하다. 반드시 총무원 청사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측은 "종회의원들이 종단과 총무원을 장악하기 위해 종정을 압박했다"며 "올해 6월 16일 상벌위원회의 1심 징계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서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서리측 집행부와 중앙종회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법화종이 창종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종단인 법화종은 이번 총무원장 구속 사태로 의전순위가 30개 종단 가운데 28위로 밀려나는 등 종단 위상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무엇보다 총무원장 궐석에 따른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시급하지만, 양분된 현 종단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 논란 여부를 떠나 총무원 책임자인 총무원장 서리는 중앙종회에 의해 불신임됐고, 종법상 총무원장 선출권한을 가진 중앙종회 의원 9명 가운데 5명이 총무원장 서리에 의해 징계조치된 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회의장 성운 스님은 "더이상 종단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여론이 많다"며 "많은 상처를 입더라도 썩은 부분을 과감히 드러내고 제거해야만 법화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종회 의원들이 제기한 총무원장 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7월 17일 심리 종결됐으며 선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국장 지상 스님과 문화국장 법성 스님이 7월 29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66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성보인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에게 예를 올리고 있다.

美 반출 신흥사 영산회상도 돌아왔다

7월 29일 환지본처… '시왕도'도 함께

한국전쟁 시기 무단반출됐던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66년만에 환지본처됐다.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는 7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는 조계종과 미국 LA카운티미술관(LACMA)이 지난 6월16일 반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원래 조계종과 신흥사는 미국 현지에서 영산회상도와 시왕도를 이운하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서 성보를 맞이했다.

이날 조계종과 신흥사를 대표해 조계종 총무국장 지상 스님과 문화국장 법성 스님이 성보를 맞았다. 돌아온 불화들은 2년에 걸쳐 박지선 용인대 교수가 복원했으며, 그가 직접 제작한 목함에 담겨 이운됐다.

불화들은 이후 무진동 차량으로 옮겨져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입고됐다. 불화는 8월 말 봉행 예정인 환수 고불식서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눔의집 이사 직무정지에 불교계 '공분'

경기도가 나눔의집 이사에 대해 지난 7월 21일 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가 우려와 공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묵)는 7월 31일 회원 일동 명의로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본사 주지 스님들은 입장문에서 "민간합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전문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내부 문제 제기 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활동함으로써, '조사단'이 아닌 내부 제보자들의 '변호인단'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나눔의집 이사에 대한 집행 정지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결론과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게 아니고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미 문제 제기 당시부터 나눔의집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제보자에게 법인 운영을 맡기고자 하는 사전포석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7월 29일 대변인 삼혜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나눔의 집' 전체 임원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즉각 거두어 달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법적 근거와 권한, 그리고 구성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경기도, 이사 직무정지 내려
조계종 · 본사주지 성명 발표
"이재명 지사 현명한 판단을"

못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조계종은 "객관과 공정은 사라지고 편견과 편향에 사로잡힌 이들에 의한 조사는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경기도의 이러한 행위는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며, 나아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이재명 지사님의 소신과 정치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종교지도자들도 나눔의집 이사 직무집행정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김희중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은 7월 28일 '나눔의집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경기도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나눔의집을 오랜 기간 조사를 했음에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더욱이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이 다소 일방적이라는 걱정이 있어 나눔의집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보다는 특정한 몇몇 의견에만 주목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깊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보물 지정

문화재청 7월 27일 지정 공고
경북 집중된 모전탑 전통 계승

경북 지역에 집중된 모전석탑 계열의 전통을 잇는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12호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 소재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英陽 縣里 五層模塼石塔)'을 보물 제2069호로 지정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은 경상북도 북쪽 지역인 영양읍 현리의 반변천과 가까운 평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옛 사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지 주변에서 출토된 용문(龍紋)의 암막새, 탑의 치석(治) 형태와 문설주의 인동문(忍冬紋, 꽃무늬와 덩굴무늬가 조화를 이룬 무늬), 일제강점기 당시 만들어진 보고서 등을 통해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로 조성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은 석재를 벽돌(塼)모양으로 다듬어 축조됐고, 크게 기단부 · 탑신부 · 상륜부로 구성됐다. 1층 탑신은 12단으로 축조했고, 남면에 감실(龕室)을 두었다. 감실은 화강석으로 된 장대석으로 좌우 문설주와 상하에 인방(引枋)을 놓아 문비(門扉)를 설치했다. 벽돌 모양으로 석재를 다듬을 때 모서리돌을 둥글게 처리하여 탑의 조형에 부드러움을 주고자 했는데 이 같은 사례는 다른 석탑과 전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다.

문화재청은 "경북 지역에 집중된 모전석탑 계열의 탑이라는 희소성과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충분히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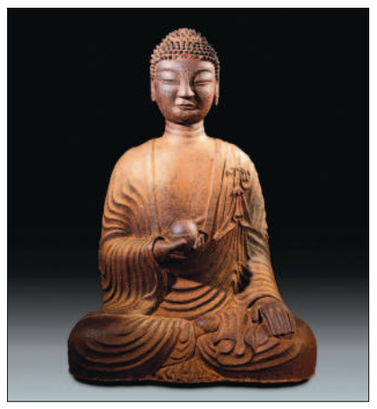
강원 지역 '철불' 한 자리에

춘천박물관 2020년 특별전
'불심 깃든 쇳물, 강원 철불'
7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철불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7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0년 특별전 '불심 깃든 쇳물, 강원 철불'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강원지역에 다수 남아있는 철불만을 주제로 한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철불의 내부를 관람객이 직접 볼 수 있다. 무게 250kg내외의 철불 내부는 그 무게로 인해 그동안 공개된 적이 별로 없었다. 아울러 과거 국립박물관에서 수습한 홍천 물걸리사지 출토 철불편의 얼굴 3D 복원 데이터가 최초로 공개된다. 물걸리사지에서 확인된 철불편은 2개체로 추정되며, 국립춘천박물관은 이 중 한 개체의 얼굴을 3D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향후 철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지난 3년간 철불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속해왔다. 올해 그 결과물인 '소장품 연구보고서Ⅲ - 강원지역 철불의 과학적 조사 · 분석 보고서 Ⅰ' 간행과 더불어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강원 지역 철불의 조성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됐다.



춘천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되는 약사불.

제1부 '여러 재질로 만든 불상들'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다양한 불상을 소개한다.

제2부 '시대가 만들어낸 불상들'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서 만들어낸 불상들을 소개한다. 평양 원오리사지 출토 소조보살상(고구려), 서산 보원사지 출토 금동불입상(백제) 등 춘천에서 보기 힘들었던 삼국시대의 불상들이 함께 전시된다.

제3부 '어디서 만들었을까'에서는 철불제작소로 추정되는 동해 지가동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토기편 등 나말여초 시기의 유물들과 불상 주조의 유력한 증거로 추정되는 나발범편 등이 소개된다.

제4부 '어떻게 만들었을까'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철불의 주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5부 '철불 안 들여다보기'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철불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람객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관람객은 직접 손전등으로 철불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한편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보존과학의 성과를 보이는 전시인 만큼 철불의 3D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소형 거푸집으로 '나만의 철불 수호신'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전시 기간 동안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회당 10명으로 제한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선 · 직능직 보궐선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이하 중앙선관위)는 7월 27일 회의를 열고 17대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 직능직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직선직 종회의원은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의 후임이며, 직능직 종회의원은 지난 7월 23일 호법부장에 임명된 태원 스님의 후임인 사다.

직선직 선거는 9월 1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17교구본사 금산사에서 진행되며, 직능직은 9월 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입후보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후보 결격사유가 없는 비구 스님이면 가능하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8월17일부터 19일까지다.

신성민 기자

선운사 도솔암, 지장기도로 왕생 발원

7월 26일 7차 기도 입재도
1029일간 천도재 21번 봉행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도솔암은 7월 26일 도솔암 대웅전 앞 마당에서 5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1029일동안 봉행된 제6차 지장기도를 회향했다.

해동제일 지장성지 고창 선운사 도솔암이 제6차 1029일 지장기도 회향법회 및 제7차 1029일 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하고 선망부모와 조상, 유구무주 영가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선운사 도솔암(주지 경우)은 7월 26일 도솔암 대웅전 앞 마당에서 5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1029일동안 봉행된 제6차 지장기도를 회향했다. 지장기도는 합동천도재의 일환으로 봉행됐으며 돌아가신 선망부모와 조상, 태중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제6차 지장기도는 지난 2017년 10월 1일 입재해 1029일 동안 매 49일 마다 21번의 천도재를 봉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천도재를 마지막으로 1029일간의 기도를 회향했다.

법회는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복청게, 도량게, 거불, 권공, 화청, 퇴공, 시식, 소지의 순으로 불교전통의식에 따라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운집한 불자들이 선망영가들의 극락왕생과 다겁생의 법장소멸을 기원했다. 이날 도솔암은 제7차 1029일 지장기도 입재법회도 봉행했다.

이날 입재한 1029일 지장기도는 2023년 5월 20일까지 1029일간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재를 봉행하고 매 49일마다 21번의 천도재를 봉행하게 된다.

법회를 주관한 총무 성본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달려와 동참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불자 여러분들의 원력으로 세차게 내리던 장마비도 오늘 하루 그치고 모든 법회가 원만하게 진행됐다. 중생 구제를 위해 성불도 늦추었던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모든 영가들이 극락왕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는 철저한 방역을 마친 후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특히 대중들에게 식사공양 대신 주먹밥과 떡, 생수를 포장해 전달했다.

수해복구 위해 미소원 아빠들 달려가다

7월 26일 자성대 일대서
전기 공사 및 청소 담당

부산에 물 폭탄이 떨어졌다. 자동차가 떠내려갔고 지하에 있는 가게들은 초토화 됐다. 안타까운 수재민들을 위해 미소원이 나섰다.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 아빠봉사단이 7월 26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자성대 아파트와 안창마을 범일 1동 산사태 지역을 방문해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에는 장유정 이사장을 비롯해 아빠 봉사단 10여 명이 동참했으며 피해를 입은 각 집을 방문해 전기 누전을 예방하는 누전 테스트 및 전기공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물에 젖은 가구를 옮겨주고 청소를 지원했다.

이에 앞서 미소원은 수재 복구를 위한 성금도 전달했다. 미소원은 지난 7월 22일 수해복구지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부산 동구 자성대복지관에 200만원과 미소원 회원 중 피해를 입은 수해가정에 100만원이 지원됐다. 지원금은 백중 기도비에 회원들이 십시일반 후원한 보시금을 더해 마련됐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미소원 인근 시민회관 근처에는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흙탕물에 잠겼다. 지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상품들이 모두 물에 젖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며 "긴급지원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소원은 수해복구 지원금 300만원을 동구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회원들이 모은 수해복구자금이며 벽지와 장판 등 수해복구 용품 구입비로 회향된다. (051)646-9074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단법인 미소원 아빠봉사단이 7월 26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자성대 아파트와 안창마을 범일1동 산사태 지역을 방문해 봉사를 실시했다.

광명사, 백중 참의미 '孝 실천'으로 강조

7월 26일 백중기도 입재

'효' 전하는 프로그램 운영
부모은중경 현수막 설치해
어린이 위한 효 교육 실시


광명사는 7월26일 대광명전에서 '불기2564년 백중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광명사는 백중의 참된 의미는 효 실천이라 강조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가 백중기도를 입재하며 '효(孝)' 실천을 강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백중의 참 의미를 전했다.

광명사(주지 개문)는 7월26일 대광명전에서 '불기2564년 백중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은 주지 개문 스님 및 신도들이 모여 흰 국화를 영가에 올리며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영단을 향해 다함께 기도하며 시식(施食)에 동참했다.

주지 개문 스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백중의 참된 뜻, 효를 실천하고 마음에 바르게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며 "효를 실천해 나가면 나라와 온 인류를 위해 다시없는 큰 공덕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광명사는 영가의 업장을 씻는 관욕의식 및 헌공 등 일반적인 백중 입재식으로 진행하면서, 도량 곳곳에 효를 강조하는 말씀을 붙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영단 바로 옆에 부모의 은덕을 기리는 〈부모은중경〉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벽에 걸었다. 이 뿐 아니라 어린이 법회에서 광명사는 〈부모은중경〉을 설명하며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효를 설명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어린이 지도법사 혜안 스님은 "부모님의 사랑은 보물과 같다.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은 백행의 근본이 효이며 효를 실천할 때 온 인류를 위한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다"며 효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회 학생들은 〈부모은중경〉을 가지고 병풍을 만들며 효에 대한 마음을 다시 되새겼다.

아울러 광명사는 부모에게 전하는 편지를 담기 위해 '하얀 우체통'을 설치했다. 영단을 찾아 재를 올리는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편지를 적어 넣는 곳이다. 박성현 총무팀장(어린이 지도교사)은 어린이가 쓴 편지를 공개하며 "요즘 어린이들에게 효를 실천하라 가르치는 곳이 없고 이런 교육조차 낯설어 하는 게 사실이다"며 "백중 기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학생(장서초 3)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를 쓰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낳아주셨기에 제가 태어났다"며 "한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극락에서 평안하시길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명사는 목련존자의 효심을 아는 것이 백중의 참 의미이고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성현 총무팀장은 "재를 지내는 것도 좋은 의미이지만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말씀처럼 실천이 큰 공덕이 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릴 때 아이들을 교육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진규 정토원장 49재 막재 엄수

7월 26일 정토원 법당서


김해 정토원 신도회는 7월 26일 대법당에서 정토원 선진규 원장의 49재 막재를 봉행했다.

봉화산 정토원의 선진규 원장의 49재 막재가 엄수됐다.

김해 정토원 신도회는 정토원 선진규 원장의 49재 막재를 7월 26일 정토원 대법당에서 봉행했다.

선진규 원장은 김해 봉화산 봉우리에 호미든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하여 심신, 사회, 경제, 사상 개발을 목표로 생산 활동과 계몽운동을 주장했으며 불교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막재에는 사단법인 광주 전통불교 영산재 보존회 회장 월인 스님, 고성 적멸보궁 지성 스님, 김해 금강사 법장 스님,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권양숙 여사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인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의 포교와 화합을 위해 노력한 큰 분이셨다"며 "장마 가운데 이렇게 해가 밝게 비치는 것도 마치 광명의 빛을 일러주는 선진규 법사의 마지막 당부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역어르신 위한 문화체험 호응

구례군건강센터, 7월 20일
행복 노후 위한 프로그램


한지공예 프로그램 현장.

화엄사(주지 덕문)에서 운영하는 구례군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선보인 문화체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마사회 지원사업인 '오감만족 한지공예'와 '시니어 리마인드 웨딩'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시니아 리마인드웨딩은 7월 20일 구례지역 60세 이상 11쌍 부부의 결혼식과 함께 진행됐으며, 오감만족 한지공예는 지난 1월 21일 시작해 7월까지 구례군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활공예품인 '애기장'과 '서랍장' 만들기를 통해 참여자들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삶의 활력을 찾아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센터장 도운 스님은 "노년기 정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즐겁고 신나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지영 작가 개인전 개막

7월 25~8월22일까지

명상을 주제로 작품의 세계를 열어가는 현지영 작가의 개인전 '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명상의 시간, 내 마음을 볼 뿐'이 7월 25일부터 김해 은암문화센터 1층 은암갤러리에서 열린다.

개막식에는 은암문화재단 이사장 신공 스님,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시는 8월 22일까지 이어진다. 은암문화재단 이사장 신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수행과 마음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은암문화센터에서 명상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작품 세계를 통하여 바쁜 일상에서 단비 같은 무위(無爲)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지영 작가는 "알아차림을 통해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얻으면 내 마음속의 아미타불을 만날 수 있다"며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번뇌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만 있다면 지금 이순간이 극락세계가 될것"이라며 작품을 소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뮤지컬 '싯다르타' 시즌2, 부산서 만난다

8월14~16일 영화의전당서
동적인 안무 강화 등 변화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싯다르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부산을 찾는다.

뮤지컬 '싯다르타'는 붓다의 삶과 깨달음, 전법의 과정을 담은 내용으로 부산에서는 두 번째 공연이다. 뮤지컬 공연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8월 14일~16일 오후 2시와 6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4일에는 오후 8시에 진행된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 '싯다르타'가 부산을 찾아온다. 뮤지컬 공연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8월 14일~16일 오후 2시와 6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4일에는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연출은 성천모 감독, 싯다르타 역에는 배우 김보강, 어린 싯다르타 역은 최윤우가 맡는다. 배우 김보강은 뮤지컬 삼총사, 영화 머니백, 드라마 외출 등에 출연해 뛰어난 연기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배우 최윤우는 부부의 세계, 마이베이비 등에 출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연출자와 출연 배우들에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공연에 비해 새로운 느낌으로 기대가 높다.

코로나19 사태를 염두에 두고 뮤지컬 도입부에 병자의 모습을 넣고, 안무도 다소 정적인 분위기에서 동적인 분위기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가미했다. 제작사 측은 "권력과 부를 버리고 깨달음의 길로 나선 부처님의 삶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며 관람료는 VIP석 12만 원, R석 10만 원, A석 8만 원, B석 4만 원이다. 학생, 종교인(불교 기관단체 직원 포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20인 이상), 60세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재관람 등에 대해 증빙서류 지참 시 20~50%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좌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총 400석만 오픈된다.

김면수 프로듀서는 "극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구성력을 좀 더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힐링 뮤지컬로 다가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1661-419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아름다운세상~' 모임 함박복지관에 물품 지원

아름다운세상을만드는사람들(대표 강인덕)이 7월 2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함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대호)에 사랑의 쌀 및 코로나19 예방물품을 후원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쌀 400kg, 컵라면 5박스, 마스크 750매, 손세정제 20개 등으로, 연수1동에 거주하는 이주고려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인덕 아름다운세상을만드는사람들 대표는 "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뿌리가 같은 고려인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이번 지원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대호 함박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고려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아름다운세상을 만드는사람들의 이번 지원이 이들의 생계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현불 논단

유튜브와 中道

황순일 교수
동국대 불교학부



코로나19로 스트리밍 서비스 '각광'
1인미디어 표방 '유튜브' 높은 성장
어린이들 장래희망에 '유튜버' 올라

접근 용이 · 정보 공유 유튜브의 장점
자극적 콘텐츠로 구독자 유치 '문제'
가짜뉴스 · 과장 정보로 사람들 현혹

인간 욕망 · 번뇌 사이버 공간도 오염
스스로 '중도'적 가치 살피며 이용을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독함 또는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 와중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느라 바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늘어난 혼자만의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록 사이버 공간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버 공간 또한 우리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간이야 말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허세로 가득한 허망하고 전도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많은 회사들이 위기에 봉착했지만, 넷플릭스(Netfix)나 유튜브(YouTube)와 같은 '온디맨드(On Demand)' 스트리밍 서비스는 날로 번창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 전문 프로그램들을 월정액에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면, 유튜브는 1인 미디어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신만의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 유튜버(YouTuber)가 꿈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어린 아이가 장난감 유튜버로서 매달 상상하기도 힘든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유튜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한 장비만 갖추면 자신만의 노하우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자신만의 지식을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며, 자신만의 고민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검색하는 수단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면서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글을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구글이나 네이버를 대신하는 검색 및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서 유튜브가 멀티미디어 시대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과 허세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이 친구 숫자 또는 팔로워 숫자에 매달리는 것처럼, 유튜버(YouTuber)들은 자신의 채널을 즐겨 찾는 구독자의 숫자에 매달리게 된다. 왜냐하면 구독자 1000명에 구독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유튜브를 통해 개개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부리는 허세는 유튜브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유튜브라는 가상공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채널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과장되고 극단으로 치닫으며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내용들이 유튜브라는 사이버 공간을 채워가고 있다. 정치를 논하는 유튜버들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상품을 리뷰하는 유튜버들은 간접 광고에 매진하고 있으며, 먹방 유튜버들은 엄청난 폭식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허세가 가치중립적이었던 사이버공간마저도 허망하고 전도된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코로나19로 갑자기 늘어난 혼자만의 시간에 장시간 유튜브의 바다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문득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majjhima patipada)'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게 된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社 說

만행결사 '불교중흥' 초석되길

부처님 숨결 따라 도보로 인도를 순례하는 위례 상월선원의 인도만행결사를 앞두고 예비 순례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공주 태화산 일원서 열렸다. 인도만행결사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뜻과 의미를 계승해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두 번째 결사로, '45년간 길 위에서 수행, 전법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 초심으로 돌아가 탈종교시대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중흥의 토대를 세우겠다'는 원력에서 비롯됐다.

본래는 오는 11월에 인도 7대 성지를 순례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순례 참가자는 모두 110명으로, 이들은 입재 · 회향일을 제외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4시부터 한국문화연수원 인근 태화산 일대를 30km씩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순례 대중들의 원력이 담긴 걸음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앞선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한국불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줬다. 조용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부수고 천막 무문관을 설립하고 석달을 오롯이 수행한 아홉 스님의 결기에 대중들은 감화됐다. 유튜브로 선원 소식을 전하고 외호대중이 함께 정진하는 열린 결사로서의 면모도 화제였다.

천막결사가 '좌선(坐禪)'을 중심으로 한 정진이었다면, 이번 만행결사는 '행선(行禪)'을 바탕으로 한 정진이다. 수행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상월선원의 원력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원력의 결사는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만행결사 참가 대중이 내딛는 걸음이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위기의 법화종, 결단 필요하다

신라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계승해 생활불교를 주창하며 중생교화와 호국불교를 종지로 활동해온 법화종이 과거의 위상에 역행하고 있다. 올 1월 前 총무원장 도성 스님이 배임수재죄로 법정 구속되면서 불교계 안팎에 적지 않은 충격을 전한데 이어,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종단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법화종 내홍이 외부로 드러난 계기는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 주지 임명으로 인한 논란 때문이다.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 체제의 총무원 집행부는 前 총무원장이자 안정사 주지였던 도성 스님의 구속 이후 공석인 주지직에 A스님을 임명했지만, A스님이 과거 강간치상과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다른 전과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야기됐다. 총무원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범죄경력증명서를 공개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증명서의 발급용도에 따라 모든 범죄사실이 기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A스님이 안정사 주지 임명 이틀 뒤에 종단에 2억원을 입금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총무원과 중앙종회 간 대립도 심각하다.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을 불신임하고 배임수재로 검찰고발한데 이어, 총무원 역시 종앙종회 의원 5명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종단 정상화의 시작은 원칙과 투명성이다. 종헌종법에 근거해 모든 임직원의 자격을 검증하고 前 총무원장 때부터 현재까지의 회계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바로 잡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법화종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종단이 창종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변화의 물결에 힘을 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마음 그릇 키우기

세상에는 자기를 세우는 사람과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남이 자기를 꾸짖으면 자신도 그만큼 되돌려 줍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면 미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줍니다.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남이 자기를 꾸짖어도 되돌려 꾸짖지 않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미움으로 되갚지 않습니다. 또 남이 때린다고 해도 되돌려 때리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꼭 되돌려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돌려주지 않음으로 해서 즉 복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익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사자와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군요.

사자 한 마리가 큰 나무 아래 누워 있는데, 바람이 불어 나무열매가 사자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사자는 화가 나서 나무를 꼭 혼내주려 벼루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사흘 째 되던 날, 한 목수가 수레바퀴에 쓸 재목을 찾아 산에 왔습니다. 사자는 나무에게 복수 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목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수레바퀴에 쓸 재목이라면 이 큰 나무를 베어가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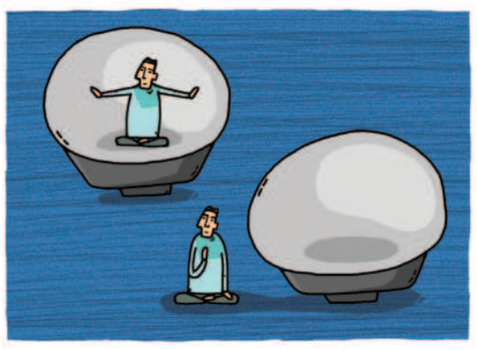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목수는 사자의 말대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넘어진 나무는 목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자의 가죽을 바퀴에 사용하면 아주 질깁니다." 목수는 나무의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사자를 사로잡아버렸습니다.

사자와 나무는 하찮은 일로 서로가 자신의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남으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손해를 본다면 그 순간은 분한 마음뿐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한 마음을 삭히고 삭힌 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찮은 일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참고 있을 걸…' 이런 후회를 해본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복수혈전'은 영화이지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을 가지고 앞뒤 재다보면 자신의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되고 맙니다.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분노의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 것이며 이는 인생 낭비입니다.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어느덧 자신의 마음그릇이 커져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그릇이 커지면 남을 미워하는 일도, 화를 내는 일도 줄어드니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만큼 세상살이도 편안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천지일보·천지TV의 '신앙의 노정' 영상에 대한 통도사 입장문

2020년 2월 10일자로 통도사에 접수된 공문에서 **'2020년 경자년 위 매체는 한국불교의 성지라 할 수 있는 통도사 탐방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에 통도사 세계문화유산을 두루 취재하고자 합니다'**라는 요청을 명시하였고, 이후에 체결된 '영화 및 방송 촬영 협조 계약서' 제1조에서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대상작품의 제작목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듭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묻는 통도사의 질문에 이상면 대표의 개인적 종교성향일 뿐 천지일보 측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통도사 측에서 확인한 '신앙의 노정'이라는 촬영결과물을 보면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듯하면서, 본래 계약과 달리 오히려 통도사 또는 조계종 소유의 명칭, 이미지, 브랜드를 자신들의 교리를 소개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촬영목적은 물론, 그 내용과 범위를 위반하였습니다. **신천지이든 기독교의 다른 교파이든 상관없이 통도사 측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계약 위반사항 및 계약 해지 통지를 2020년 7월 21일 천지일보 측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통도사의 계약위반 및 해지 통지에 대하여 천지일보 및 천지TV가 2020년 7월 29일 언론 및 공문을 통하여 밝힌 입장문을 보면, 통도사의 계약위반 주장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표현과 더불어, 이 영상이 '오히려 불교와 기독교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데 있어 기독교 교리와의 '비교' 또는 '병렬' 방식의 유용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와 비교하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알았다면 통도사는 촬영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천지일보 측의 유감에 대한 강한 유감을 밝힙니다.

그 뿐만 아니라, **촬영영상의 도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기독교 중심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특히 후반부 엔딩멘트 직전(28분 30초)의 표현을 보면,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너희 인간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모든 생각을 이제 버려라
네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것들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있는 거에요. 본향을 찾아 가야 돼.
귀소본능이라고 있지. 뭐든지 자기가 낳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 곳이야.
그리로 오라고 손짓하는 거야. 지금 하늘은"

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나레이터의 엔딩멘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다녀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이는 적다'라든가 '하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만나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표현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과연 이 영상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촬영물을 제작함에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교계나 통도사,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촬영계약서 제6조 3항에 심각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천지일보와 천지TV의 입장문 후반에서는, 해당 영상 하단 첫 댓글에 "이 영상은 천지TV 이상면 대표의 개인적 소견을 담았다"는 문구를 달아 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천지일보와 천지TV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 대부분이 이상면 대표의 설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볼 때, 영상에 대한 촬영주체로서의 관리와 심의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도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언론에서는 7월 30일 오전 천지일보·천지TV 측의 해당 영상삭제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종교평화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당연하고도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과표명 없이 "제작 의도와 달리 일각에서 본 영상을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영상 삭제의 이유는 촬영영상물 자체에 대한 계약상의 문제를 비롯한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한 통도사의 입장을 무시하고 종교 갈등의 이유를 불교계와 언론에 돌리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합과 상생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천지일보의 사시(社示)를 존중하며, 앞으로 통도사는 불교계 및 불교언론과 함께 천지일보·천지TV의 제작영상에 대한 관심 있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불교교리와 문화를 왜곡·폄훼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벌어질 경우, 이번 사건과 더불어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 2564년 7월31일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9~8/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2	요가디피카 (아쉠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이쉠가 / 현천스님	선요가
3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4	일곱번의 작별 인사 (무비스님의 49재 법문집)	무비스님	불광출판사
5	연꽃 법화경	원순스님	법공양
6	낡은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7	칸니 명상 : 아나빠나삿띠와 위빳사나수행의 입문서이자 안내서	수망갈라 / 차은숙	운주사
8	깨달음이 뭐라고	고이데 요쿠 / 정현옥	불광출판사
9	한국의 산사 세계의 유산	주수완	조계종출판사
10	우주의 중심 : 카일라스	김규현 / 이상원	마음여행

책세상

아나빠나삿띠와 위빳사나 정수 담은 '칸니 명상'



칸니 명상

수망갈라 지음 / 차은숙 옮김

운주사 / 3만원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실라 띳사 스님 120년 전 소개한 미얀마 구전 수행법 '칸니 명상' 사마타 · 위빳사나 아우른 수행법 "자아실체 · 우주 속 자신 인지"

철저하게 상좌부 불교의 정통 가르침과 주석서에 근거해 아나빠나삿띠와 위빳사나의 정수를 담은 수행 입문서이자 종합 안내서인 〈칸니 명상〉이 출간됐다.

칸니 명상은 미얀마에서 오랜 시간 스님들에게만 구전으로 전해온 수행법으로, 짧은 시간에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수행방법을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초보수행자뿐만 아니라 보다 깊은 명상을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칸니 명상은 실라 띳사 스님이 약 120년 전 미얀마에 처음 소개한 수행법이다. 그는 아라한으로 알려진 스승 찌딸라 마하테라 스님으로부터 이 명상법을 전수 받았다. 그 당시에는 명상이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레디 사야도 등 많은 유명 스님들이 실라 띳사 스님의 지도하에 함께 명상을 했다. 그때 함께한 수행이 집중명상(사마타)과 통찰명상(위빳사나)이 포함된 칸니 명상이었다. 저자인 수망갈라 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칸니 명상을 지도했으며, 현재 깊은 산속에서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탁발로 연명하며 홀로 정진 중이다. 책은 구전으로 전해온 수행 비법과 저자 자신의 체험, 그리고 명상 지도 경험을 종합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불교의 명상은 크게 사마타 수행(고요명상)과 위빳사나 수행(통찰명상) 둘로 나눌 수 있다. 사마타는 어떤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얻는 수행법이고, 위빳사나는 집중된 마음(사마타)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의 본질을 통찰하는 수행법이다.

아나빠나삿띠는 호흡의 들숨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수행법으로, 사마타 수행의 한 종류이면서 모든 명상의 기본이 되는 수행법이다. 그리고 위빳사나는 열반에 이르는 도의 지혜를 얻는 수행법인 만큼 무상, 고, 무아라는 3가지 특성을 알아차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통 칸니 명상코스는 55일이 소요된다. 사마타 수행을 35일, 위빳사나 수행을 20일 동안 한다. 직장인들을 위해 10일 특별집중코스도 진행한다. 10일 코스에서는 하루에 최소한 8시간 동안 저녁 9시까지 계속해서 1시간 좌선, 30분 걷기 명상을 반복한다. 10일 중에 7일은 사마타 수행을, 3일 동안은 위빳사나 수행을 한다.

이처럼 칸니 명상은 먼저 아나빠나삿띠 수행을 통해 강한 집중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위빳사나 수행으로 전환하는 수행법이므로, 사마타와 위빳사나를 아우르는 수행법이다.

칸니 사마타 수행은 아나빠나삿띠를 통해 선정에 근접하는 집중을 얻기 위한 수행으로, 깊은 집중 상태에서 개념화된 빛의 심상을 얻으면 제3의 눈을 통해 멀리 떨어진 물체를 보는 초능력 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호흡관찰을 통해 불면증이나 허리 통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 치유되기도 한다. 용맹정진한다면 25일 이내에 깊은 집중의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선정의 입구인 근접삼매에 이를 수 있다. 근접삼매에 이르면 위빳사나 수행을 시작한다.

위빳사나 수행에서는 매 순간 명상 대상인 아지랑이 같은 물질 미립자를 알아차림으로써 마음과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철견(撤見)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터득하여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마침내 모든 괴로움을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 있다. 즉 위빳사나는 인간의 근본적인 어리석음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인 수망갈라는 "부처님은 고통을 끊는 유일한 길이 위빳사나라고 말씀하셨다. 위빳사나 수행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으며, 자아의 실체와 무한한 우주 속 당신의 현 위치를 알게 된다. 깨달음을 얻기만 한다면, 존재에 대한 집착은 더 이상 절망적인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위빳사나 수행을 함으로써 당신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길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한 것을 환영하며, 영적인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에게 최고의 안내를 약속한다."고 말한다.

수망갈라는 미얀마 양곤 경영대학교에서 통계수학을 전공했으며, 국영 석유회사에서 재직 중 자진 퇴사한 후 계를 받고 미얀마 불교 승가의 일원이 되었다. 싯따구 국제 불교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쳤으며, 만달레이 양킨 국제명상센터의 명상지도 스님으로 국내외 수행자들에게 칸니 명상을 지도했다. 2006년, 모든 행위를 끊고 24시간 철야명상을 마친 후, 인도의 4대 불교성지 순례를 했다. 2013년 다시 인도를 찾아 우루웰라 동굴에서 단독 집중수행했으며, 보리수나무 아래서 밤낮으로 용맹정진했다. 2019년 대만에서 〈The True Power of Kanni Meditation〉을 출간했다.



저자 수망갈라가 명상을 하며 숲속을 걷고 있는 모습.



종이 칼

법념 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1만3천8백원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길"

천년고도 경주 거닐며 사유한 삶의 깊은 이야기 40여 편 소개

"아! 완연한 봄이로구나. 여기저기서 생명이 움트는 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분다. 꽃이 져버린 생강나무는 가지 끝에 잎만 뾰족이 나와 흔들리지 않는다."

팔순을 바라보는 스님은 오랫동안 천년고도인 경주를 거닐며 많은 사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날을 돌아보고 떠오르는 기억들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게 사유했다. 책 〈종이 칼〉은 깊은 사유 속에서 길어 올린 삶의 이야기 40여 편을 엮은 법념 스님의 첫 산문집이다. 책 속의 이야기들은 '법념의 이야기'에서 '삶의 이야기'로 확장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산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머금게 한다. 오래된 그 이야기들은 그저 지나간 옛이야기가 아닌 오늘로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다.

팔순을 바라보는 스님도 소녀였던 때가 있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스님은 여섯 살이었다. 영화의 고장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소녀는 '서울내기 다마내기'라고 놀림도 받았지만 바다가 있어서, 영화가 있어서 좋았다. 꿈을 꿀 수 있어 좋았다. 출가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며 열심히 살았다. '법념'이라는 법명이 발음하기 힘들다며 법명을 바꿔달라고 큰스님께 투정부리던 스님은 어느덧 팔순의 나이를 바라보게 됐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건망증으로 힘겨운 '노스님'이 되었다. 그래도 스님은 아직도 떠올릴 추억이 많다.

책 〈종이 칼〉은 법념 스님이 보고 느낀 세상의 모습이며 자신의 오래된 추억들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히 지내왔던 일들에 호기심을 보이고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재밌고 아름다웠구나!" 아이처럼 감탄한다. 종이 한 장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종이에 쓰인 글이 금강보검과 같아 백팔번뇌를 다 베어낼 수 있는 것처럼, 법념 스님은 〈종이 칼〉에 담긴 글들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법념 스님은 1945년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났다. 1972년 혜해(慧海) 스님을 은사로 불교에 입문했다. 1976년 수원 봉녕사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제방선원에서 15년 동안 안거했다. 2013년 '동리목월' 신인문학상으로 문단 추천을 받았다. 향곡 스님의 생전 일화를 정리하여 〈봉암사의 큰 웃음〉을 출간했다. 현재 경주 흥륜사 한주로 살고 있다.

박재완 기자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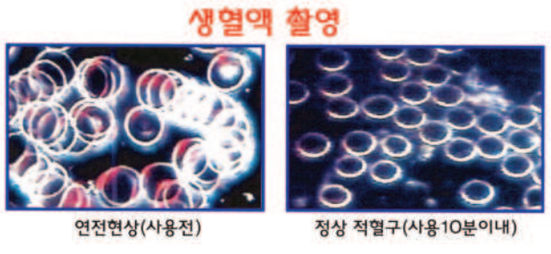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 목·어깨·허리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아토피·무좀·가려움증·비듬·발뒤꿈치각질·체취 등 피부질환을 없애준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잇몸이 아플 때에는 아픈 부위에 치약을 그대로 발라만 줘도 통증이 그냥 사라지며
▶ 양치 후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의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 예방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 저녁식사 뒤 양치 후 삼켜버리면 입 안의 세균이 없어짐은 물론 구강부터 항문까지 건강해지고 매일 아침 고질적인 구취까지 없어져 입안이 개운하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치약만 사용했을 뿐인데 비누는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 정상화에 의한 건강이 유지되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를 과대광고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하는 것이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올바른 국가 정책일 것입니다.

“불가촉천민, 인구조사시 ‘불교’ 선택해야”

인도 전문가들, 계급타파 위해 제언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의 전통적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인 달리트(Dalit)들에게 그들의 종교로 ‘불교’를 선택하라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의 7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암베드카라이트 국제공동학회(Ambedkarite International Co-ordination Society, 이하 AICS)는 7월 23일(현지 시간) 열린 ‘달리트를 위한 2021년 인구조사’라는 제목의 웨비나(Webina, 인터넷상의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평등사상을 중시하는 불교도의 증가를 통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국가 지도부에게 달리트들의 계급 타파 의지를 관철하자는 취지다.

인도는 2018년 기준 약 13억5300만 명 인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13억9300만 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다. 인도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확한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조만간 2021년 인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최하위 계급인 ‘수드라(Sudra)’에도 속하지 못한다. 상류층인들은 막대한 특권을 누리는 반면, 달리트들은 갖은 탄압과 핍박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도 역사에서 불교도는 카스트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편으로 여겨졌다. 시초는 1949년 인도의 독립헌법을 초안한 달리트 출신의 지도자이자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로 꼽히는

AICS, 인터넷 세미나에서
내년 인구조사 관련 주장
“불교도 증가 통계수치로
지도자들 인식 변화 유도”

암베드카르(Dr. B. R. Ambedka)박사다. 암베드카르는 1956년 약 50만 명의 달리트와 함께 불교로 개종해 카스트 제도에 도전했다. 그 후 수많은 달리트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이른바 ‘달리트 불교 개종 운동’이 이어졌다.

암베드카르의 기조를 바탕으로 설립된 인권단체 만스쿠 트러스트(the Mansku Trust)의 담마다르시(Dhammadarshi) 언론홍보 담당관은 2017년 개종식을 언급하면서 “만행을 겪은 우리 민족은 불교로 전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의 근원이 그들의 정체성(계급)임을 알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달리트와 불가촉천민으로 남아 있는 한 굴욕과 차별,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인도의 전문가들이 불가촉천민인 달리트들에게 불교를 종교로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사진출처=deccanherald.com

인도의 불교 지도자들은 오는 인구조사가 불교로 전환하는 달리트들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2011년 인구조사에서 인도 인구의 약 1퍼센트 미만이 불교도에 불과했다.

G.C. 카울 박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암베드카르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인 6명 중 1명으로 여겨진다. 그는 ‘달리트가 어떻게 아리안협회(Aryan Society)라는 단체에 의해 불가촉천민으로 분류됐는지’ 등을 증명했다”며 “21년 동안 모든 종교를 심층 연구한 결과 그는 새 종교를 창조하는 대신, 평등과 정의, 보다 넓은 인문주의의 토대를 가진 불교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AICS 창립멤버 찬찰 몰(Chanchal Mall)도 “달리트들은 공문서 작성 시 별도의 종교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인구조사에서 불교도로서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암베드카르 박사 기념 위원회장 쿠시윈더 쿠마 빌라 등도 이 같은 움직임이 지역사회와 국가 지도자들에게 명확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日불상연구가, 코로나 종식 발원 불상 조성

현재 4000여구 이상 완료
8월까지 6천구 조성 발원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며 조성된 불상들을 보이는 사카노씨.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코로나 19의 종식이 요원한 가운데, 일본에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19의 조기종식을 발원하며 불상을 조성하고 있는 남성이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21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동료들과 함께 6천구의 불상을 조성하고 있는 사카노 카오루씨의 불사를 보도했다.

일본 사카이(堺)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카노 카오루씨는 ‘엔쿠불(円空佛)’이라고 불상을 연구하는 연구가다. 엔쿠불은 에도시대 초인 17세기 중순, 일본 각지를 유행하며 불상을 조성한 엔쿠스님(1632-1695)의 불상을 말한다. 사카노씨는 “10여년전, 중증의 심근경색으로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고 요양중이던 나라(奈良)에서 엔쿠불을 만났다”며 연구를 시작한 계기를 전했다.

엔쿠불은 일본 불교미술에서는 민간불교신앙의 중요한 장르로 꼽히는 불상이다. 천태종의 스님이었던 엔쿠스님이 행각 중에 서민들이 불보살님을 예경하는데 사찰에 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곤 나무토막에 최소한의 조각만으로 불보살의 모습을 조성해 모시게 한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이후 엔쿠스님은 일본 전국을 유행하며 10만구의 불상 조성할 것을 발원했고, 현재 약 5,400구의 불상이 엔쿠스님의 진품으로 현존하고 있다.

사카노씨는 “엔쿠스님의 인생에 큰 감명을 받았다. 당시 시한부 인생에서 ‘죽기 전에 무엇인가 해보자’는 마음에 엔쿠불을 연구하고 직접 조각하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독학으로 배운 목조각에 오랜 연구에 기반한 첫 엔쿠불은 관세음보살이었다. 이후 기적적으로 병석에서 일어난 사카노씨는 엔쿠불을 연구하고 조성한 공덕으로 병이 나았다고 믿고 있다.

사카노씨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엔쿠불을 조성하고 있다. 사카노씨는 “코로나 19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을 추모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장보살을 택했다”고 말했다. 현재 완성된 불상은 약 4천여 구. 오는 8월까지 6천구 이상의 지장보살을 동료들과 함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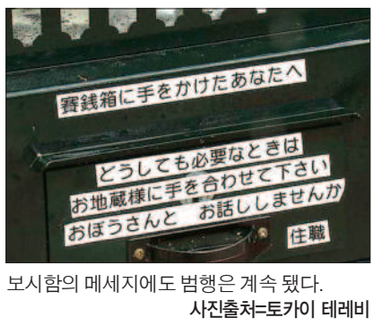
日 사찰, 계속되는 불전함 도둑에 곤란

다이호지, 상습 도난사건
주지 스님 “범인에 자비”

타종교시설들에 비해 보안과 도난사건에 취약한 사찰. 일본의 사찰들도 상습적인 불전함 털이범들로 곤란을 격고 있다. 한편 상습적인 도난사건에 골치를 앓으면서도 범인을 자비로 감싸겠다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26일 일본의 ‘토카이 테레비’ ‘FNN 프라임 온라인’ 등의 언론들은 도난사건의 경위와 사찰의 대응을 보도했다.

일본 아이치(愛知)현 아이사이(愛西)시에 소재한 ‘다이호지(大法寺). 500여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정토종의 고찰로, 예로부터 악연을 끊어내는 영험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또 아이사이시내에서 최초로 수목장을 진행한 사찰로도 지역에서 이름 높다.

그러나 다이호지는 오랫동안 상습적인 불전함 도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주지인 하세오 렌게 스님은 “오랫동안 불전함의 보시금이 도난당해 왔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필요하여 가져 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동안 알면서도 모르는 채 넘겨왔다”고 설명했다.



보시함의 메세지에도 범행은 계속 됐다.
사진출처=토카이 테레비

도난사건이 일어나는 불전함은 사찰의 마당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에 봉안한 지장보살상 앞에 서있다. 향로와 촛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 철제 불전함은 참배객들이 보시금을 넣고 초와 향을 지장보살님께 공양할 수 있는 구조로 세워졌다. 야외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세워진 불전함이니 만큼 보안에 취약한 상태다.

주지스님은 상습적인 도난사건에 불전함에 메시지를 붙여 두기까지 했다. “불전함에 손을 대려는 당신.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다면 먼저 지장보살님께 손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스님과 이야기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렌게 스님은 “설사 보시금 도둑이라 할지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상습 범행에 결국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방범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이호지 측은 “빈번한 범행에 결국 올해 1월에 적절한 해제조치 없이 불전함을 열었다간 방범부저가 울리는 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2월에 방범부저 기계채로 도난당했다”고 경위를 피해사실을 밝혔다. 경찰 측은 “방범부저채로 훔쳐갔다는 것은 해당 기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뜻으로, 상당한 악질 상습범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다.

6월 19일 오전 1시경에 촬영된 방범카메라 영상에는 60~70대 가량의 남성이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파손했으나 열리지 않자, 한동안 주변을 탐색한 후 불전함을 안고서 억지로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다이호지 측은 “홧김이었는지, 불전함은 본래의 자리에서 30m 가량 떨어진 풀밭에 던져져 있었고, 파손은 있었지만 보시금은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주지 렌게스님은 “보시금에까지 손을 대려는 건, 그만큼 힘들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함께 이야기하고, 악연을 끊는 사찰인 만큼 그간의 악업을 끊어내는 기도를 하고서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 하고 싶다. 어떤 일이든 스님으로서 절에서 기다리겠다”며 자비로운 모습을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1700년 된 불상 훼손한 파키스탄인 체포


1700년 된 불상을 훼손한 건설 노동자들.
사진출처=pakistantoday.com

파키스탄 경찰이 지난 7월 18일(현지시간) 고대 인도-파트리아 왕조 시대 불교 사찰로서 유네스코문화유산인 탁트이바히(Takht-i-Bahi)에서 발견된 1700년 된 불상을 훼손한 건설 노동자 4명을 체포했다고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가 7월 24일 보도했다.

지역 경찰은 “불상을 훼손한 혐의로 건설업자 콰마르 자만(Qamar Zaman)과 건설 인부 암자드(Amjad), 알렘(Aleem), 살렘(Saleem)을 체포했다. 훼손된 불상의 조각도 회수했다”고 외신 매체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를 통해 전했다.

경찰은 SNS상에 공유된 훼손 당시 촬영 동영상을 통해 목격자와 경위 등을 특정할 수 있었다.

훼손 과정을 목격한 현지 주민들은 “공사 도중 발견된 불상이 망치를 든 건설 인부들에 의해 부서졌다. 그들은 한 종교 지도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며 “그 종교 지도자는 불상을 가리켜 ‘비이슬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지방자치의 고고학 부장인 압둘 사마드 칸(Abdul Samad Khan)은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고대 불상 발견 사실을 알리는 대신 이를 파괴하고 조롱하는 영상을 찍었다”며 “고고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하지만, 고대 불상이 분명하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개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민중들 '미륵하생' 기원하다



이상근의
聖寶流轉

⑮ 매향비와 향도





사천 매향비와 충남 당진 안국사지. 안국사지 삼존불 뒤편으로 매향비가 보인다. 매향비는 고려시대 민중들이 미륵의 하생을 기원하며 향나무 등을 갯벌에 묻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다.

사찰에 다니고 불공도 드려본 사람들은 '침향(沈香)' 이 익숙할 것이다. 절집에서 최고의 향공양 물품으로 쓰인다. 침향나무는 주로 중국 남부나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남쪽 지방에서 자란다. 그런데 이 침향나무 전체가 우리가 아는 '침향' 이 되는 건 아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벌레들의 침입이나 외부 충격 혹은 각종 병균의 침입으로 상처가 생기는데 침향나무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처 부위에 진액을 만들어낸다. 흔히 '수지' 라고 부른다. 나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그루당 5~7kg 정도 소량만 얻을 수 있다.

〈법화경〉에는 침향을 '하늘의 꽃비' , '천상의 향' 으로 칭송하고 있다. 실제 향기를 맡으면 은은할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해주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향공양을 올릴 때는 '침향' 을 최고로 친다. 침향은 이밖에 염주나 합장주 심지어 불상을 만들 때도 쓰인다. 침향으로 불상을 만들 땐 웬만큼 고급 품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침향은 심지어 약재로도 쓰인다. 〈동의보감〉에는 '찬바람으로 마비된 증상, 중풍처럼 마비가 오고 배탈이 나서 심하게 토하고 설사하며 팔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고쳐주며 정신을 맑고 편안하게 해준다' 고 적혀 있다. 거의 만병통치약 급이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의 왕들도 침향을 애용했다고 한다.

갯벌에 나무 묻고 미륵하생 기원

이렇게 귀한 걸 부처님께 올리고 싶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고려시대 초반에 나타난 이런 무리를 '향도(香徒)' 라고 불렀다. 보통 학자들은 향도의 기원을 신라의 화랑에서부터 찾는데 어쨌든 우리가 향도라고 부르는 조직은 고려시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다.

이들은 사찰의 건립은 물론 불상, 종, 탑의 제작을 위해 보시를 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했다. 고려 후기로 접어 들어서는 마을 공동체 기능이 점점 강화됐다. 다리를 놓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조직이기도 했고 혼례나 장례 때도 일을 나눴다. 지금도 상여를 메는 일꾼을 향도군(香徒軍)이라고 부르는 데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 향도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고려사〉에는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충혜왕 3년(1342)에 왕이 신효사에 행차를 했는데 등촉배(燈燭輩, 등불을 드는 무리)가 향도(香徒)를 맺어 절에서 축수재(祝壽齋, 왕 등의 장수를 빌기 위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를 열었고 왕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기사다.

다른 하나는 고려 인종 9년(1131)에 '승려, 속인, 잡류들이 함께 모여 만불향도라 칭하여 염불과 독경을 하고 때로는 술을 팔고 파를 팔기도 하며 무기를 들고 악독한 짓을 하며 유희를 벌여 법도를 어지럽힌다' 며 음양회의소에서 단속과 금지를 청원했던 기사다. 〈고려사〉 기사로만 짐작해도 향도는 주로 불사와 법회를 위해 만들어졌던 조직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향도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으나 그중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매향에 대한 기록이다. 매향은 '침향을 얻기 위해 향나무, 소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오랫동안 갯벌에 묻어두는 것' 을 말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침향은 침향나무에서 얻어지는데…. 그렇다. 향도들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갯벌에 향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을 깊게 묻어두면 세월이 흐르면서 침향으로 바뀐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들이 매향을 하면서 염원했던 것은 바로 미륵보살의 하생이었다. 이 매향은 고려 후기인 14세기부터 초선 초기인 15세기 중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매향비 자료가 그렇다. 굳이 당시 시대 상황과 연결해 이야기하자면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있던 권문세족의 횡포가 있었을 터이고, 홍건적과 왜구의 잦은 침입을 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인 문제만이 이들을 매향의식에 동참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하튼 매향이 끝나고 나면 매향의 시기와 장소 시주자 명단들을 기록해 매향비를 세웠다. 이 매향비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사천 매향비와 당진 안국사지 매향비다.

사천 · 당진 안국사지 매향비

현재까지 남아 있는 매향비는 전국적으로 20기가 채 안 된다. 평북 정부, 고성 삼일포, 법성, 사천, 영암 엄길리, 신안 팔금도 등 고려 시대 것 6~7기, 덕산 효교리, 홍성 어사리, 신암 암태도, 신암 고란리, 장흥 덕암리 등 조선 시대 것 7~8기다.

최고의 향공양 물품인 '침향'
불상 · 악재 등 다방면에 사용

고려시대 향도들, 침향 제작
"갯벌에 향나무 · 소나무 묻고
오래 지나면 침향된다" 믿어
고려 말~조선 초 집중 '성행'

이중 가장 유명한 매향비가 사천 매향비와 당진 안국사지 매향비다.

사천 매향비는 고려 말인 우왕 13년(1387)년 세워진 것으로 높이 1.6미터 너비 1.3미터의 둥그런 모양이다. 크지 않은 돌에 15줄 202자의 글자를 새겨 넣었다. 이 비에 따르면 승려와 속인이 중심이 되어 4,100명의 계를 조직했고, 국태민안과 미륵보살의 하생을 염원했다. 다만 '마을 공동체' 만으로 볼 수 없는 정황도 존재한다. 인구 기록이다. 한참 후인 1442년 〈세종실록 지리지〉 자료에 따르면 사천의 인구는 370호 1817명이었다. 매향을 하기 위해 사천 사람들뿐 아니라 근처 마을 사람들까지 참여했다는 방증이다. 어찌 되었건 사천 매향비는 매향을 했던 목적 그리고 비의 건립 연대가 확실하게 남아 있어 보물로도 지정되었다.

매향 자료가 비뿐 아니라 절터로 남아 있어 답사로 맞춤한 곳도 있다. 바로 안국사지다. 충남 당진에 수당리라는 곳이 있는데 고려시대 건물터와 석축은 물론 삼존불도 남아 있고 무너진 돌들을 수습해 다시 세운 탑도 남아 있다.

삼존불 뒤로는 우주선처럼 생긴 가로로 긴 돌이 보인다. 높이는 2.93m로 높이 않으나 길이는 13.35m에 달한다. 마을 사람들은 배바위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자세히 보면 얕게 암각된 글씨들이 보인다. 이 바위가 바로 매향비다.

흥미로운 건 두 건의 매향 기록이 한 바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오른쪽에는 '경술년 10월에 염솔 서쪽의 출포 마을의 00등이 향나무를 묻었다' 는 기록이, 왼쪽에는 '경오년에 각성이라는 화주가 중심이 되어 향도를 결성하고 여미현의 북쪽에 있는 천구포 동쪽에 매향을 하였다' 는 기록이 있다.

왼쪽에 새겨진 '경오' 는 의견이 분분한데 고려 광종 21년(970), 현종 21년(1030) 등 이르게 시기를 잡는 경우도 있고 고려 원종 11년(1270)년, 충혜왕 1년(1330), 공양왕 2년(1390)으로 늦게 잡는 경우도 있다. 오른쪽 경술은 추정조차 불가능하지만 다만 조선 태종 7년 이전(1407)에는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오' 보다 더 늦은 시기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1310년이나 1370년이 될 것이다.

여하튼 조선 중기 이후는 매향 의식이 거의 사라졌고 또 안국사 역시 폐사의 길을 걸었으니 그보다 더 늦은 시기는 아닐 것이다. 안국사지는 꼭 한번 답사를 추천한다.

향도 사라지고 사대부 득세

향도는 고려 초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그 기능을 조금씩 바꿔가며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불교사가 변곡점을 겪을 때 항상 등장하는 그들이 또 나온다. 바로 사대부다. 불교신앙을 중심으로 마을 조직이 운영되는 것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중국에서 성리학적 향약을 수입해 온다. 중종 14년(1519년) 조광조에 의해서다. 하지만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실각하자 한동안 수면 밑에 있다가 이후 이황과 이이 등에 의해 우리 사정에 맞게 조금 수정해 보급된다. 덕업상권(德業相勸)이니 과실상규(過失相規)니 하는, 사회와 국사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참, 외우기 힘들고 발음조차 어려운 그런 것이다. 이후 마을공동체는 상층에 향약 그리고 그 밑에 두레라는 형식으로 해서 조선조를 관통하며 계속 이어진다.

꽤 오래전에 조그만 시골 절에 갔다가 스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다. '요즘은 교회 안 다니면 농번기에 품앗이도 힘들다' 는 것이다. 교회에서 교인들끼리만 모여 품앗이를 권장하니 교회에 안 나가면 사람을 사서 쓰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물론 '특수한' 얘기일 수 있고 모든 마을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고려, 조선 그리고 근대와 현대를 지나오면서 마을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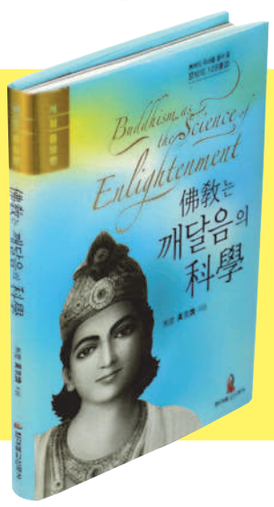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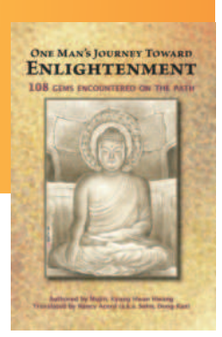
개정증보판과
영문판 동시 간행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삶을 팔아
내일의 죽음을 사고,
잘 배운 지혜로운 제자는
오늘의 삶을 불태워 내일의
죽음을 불태워 버린다. (본문 중에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창밖의 108요담



무진 황경환 지음 | 신국판 | 304쪽 | 값 15,000원

저자 황경환이 한 생애를 투자하여 빚어낸 '108개의 그물코'. 깨달음의 여정에서 그가 건져올린 108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진 이 책은, 허깨비 장난 같은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구도자가 '법의 그물'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어부 황경환의 평생에 걸친 노작이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이라는 영문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불교의 핵심 대의는 물론이고 불교의 역사에서부터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저자 자신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의 보석들"이다.

아홉 살 때, 선박업을 하시던 부친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신 이후 이런 말씀을 하신다. "환아, 너에게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만난 '죽음'이라는 화두는, 그의 인생 여정과 더불어 확대증폭을 거듭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20대 후반에 해상유류판매사업을 하던 그는 바다에 나갔다가 돌풍을 만나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에 위기를 모면, 밤새도록 성난 파도와 싸우느라 생사를 넘나들다 겨우 살아남게 된다. 재산이라고는 숟가락 몽둥이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거지 신세가 되기도 했고, IMF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환율 인상으로 부채가 두 배로 늘게 되어 파산의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갑상선암이라는 병마와도 싸워야 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 모든 둑카((苦)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면서, 인연법에 따라 불교와 조우하게 된다.

오감과 오감이 주는 쾌감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나'는 종 노릇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태어난 존재의 실존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찰해야 한다. 고타마 붓다가 45년간 인류에게 전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불교의 핵심 공식이다. 이 책은, 불교의 이 핵심 공식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해설이고 예화이고 예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 문
현대불교신문사 마하몰 02)2004-8253
총판 운주사 02)3692-7186
비움과 소통 031)945-8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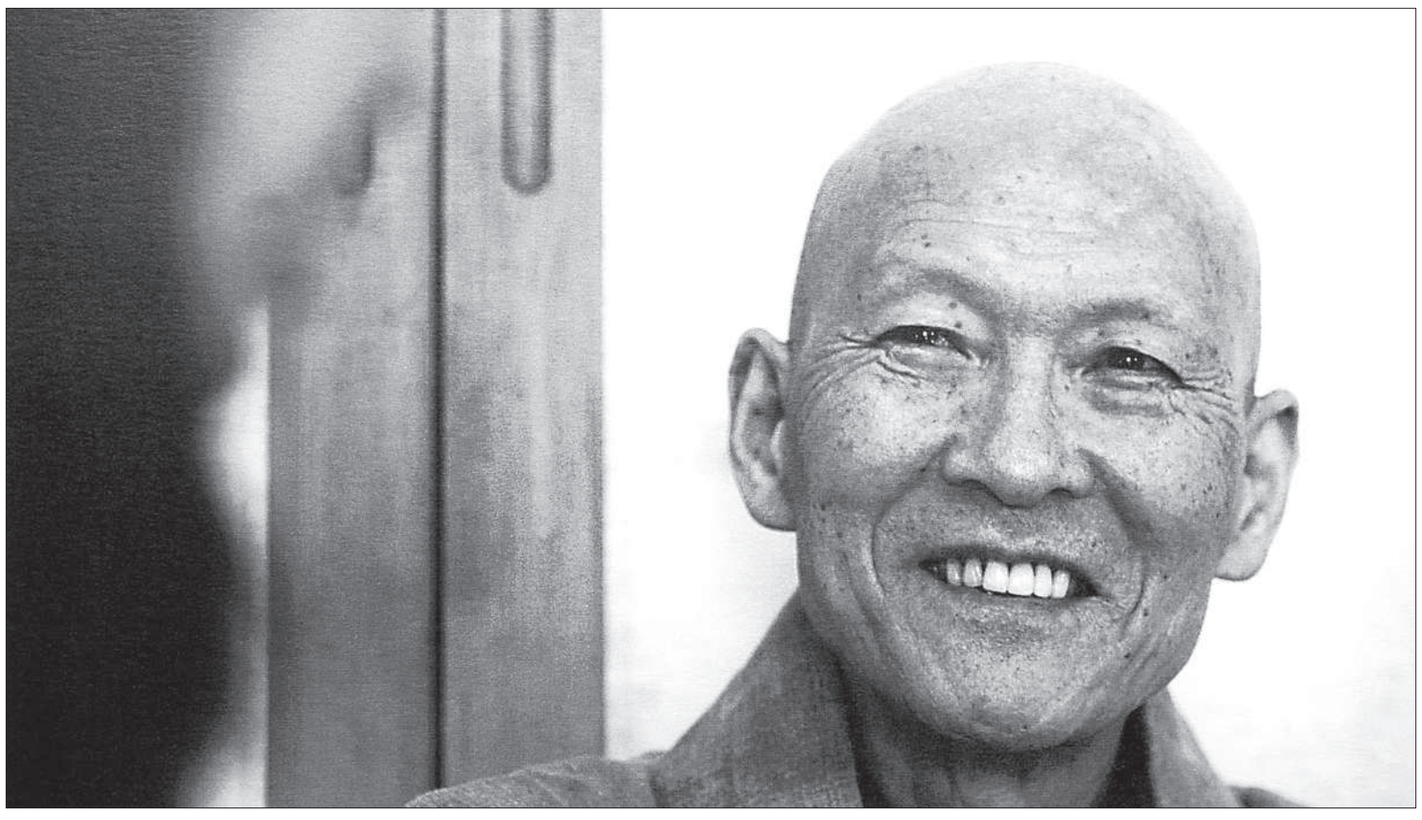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회두피안 NEWS http://www.hdpannews.com

날마다 새롭게 사랑 피우는 것 '행지'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⑮ 내가 본 법정 스님 ②



"말이라는 게 참 허망해.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듣는 사람마다 제 처지에서 헤아려 듣거든. 또 말을 하다 보면 어느새 삼천포로 빠지기 쉽구. 그래서 난 말하는 게 별로야. 그렇지만 글은 달라요. 글을 쓰노라면 생각이 정리되고 틀림없는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글은 이백 프로라도 책임지겠지만 말은 책임 못 져."

법정 스님이 남긴 말씀이다.

글로 쓰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뿐 아니라, 생각을 다듬어 간추릴 수 있다. 그래서 글쓰기는 나를 찾아가는 기도와도 이어진다면서 글쓰기를 하라고 하던 스승은 법문하실 때에도 원고지에 하실 말씀을 적어 가지고 오셔서 새겨들어야 할 것은 꼭 되풀이해 말씀했다.

이를테면 "어느 가전제품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십 년을 좌우한다' 고 했습니다. 그건 가전사가 한 말이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 을 좌우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 을 좌우한다고."라고 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업을 맑히는 일이에요. 청정한 본디 마음을 지니려고, 업을 맑히는 일이에요. 과거 · 현재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해서 마음을 맑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해서 마음을 맑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언제 어디서나 한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파리 길상사 10주년 기념 법회)."

새겨야 할 곳을 되풀이해서 말씀하는 스승이 길상사 법회 때 다듬어 가지고 오신 원고량은 늘 40분 안팎이었지만, 비가 오던지 몹시 추운 날에는 바깥에서 법문을 듣는 이들을 헤아려 말씀을 20여 분만에 마치곤 했다.

스승은 일본 스님 도겐이 펴낸 〈정법안장〉 '행지' 편을 아껴 길상사 주지실 이름을 '행지실' 이라 했다. '행지' 는 수행자가 지녀야 할 사랑 덕목으로, 행지실은 옹글게 사는 이가 머무는 방이라는 말씀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우리 자신을 형성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루어가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그 사람 실체에요. 이를 불교 용어로 '업' 이라고 해요. 까르마. 원래 살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 마음을 어둡게 먹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기 어려운 어떤 갈등을 '이것이 사람 사는 길이다' 하고 추스를 수 있었기에 고비를 넘기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갈림길입니다(파리 길상사 10주년 기념 법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고를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떻게 맞설지는 고를 수 있다. 그렇게 골라 이룬 열매가 바로 나다. 어제 올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에서 또 새로운 삶을 골라야 한다. 날마다 새롭게 사랑을 피워올리는 일이 바로 '행지(行持)' 다.

어지간해서는 길상사에 머물지 않던 스승. 법회를 마치고 점심 공양을 들고 나면 서둘러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에는 저녁에 음악회를 하는 바람에 밤늦도록 계셔야 했다. 밤 열한 시가 넘어서 떠나는 스승이 안쓰러웠으나 길상사에서 주무시지 않으려고 하는 뜻이 엄격해 주무시고 가시라는 소리를 하지 못했다. 조심스레 "늦어서 피곤하실 텐데 운전이라고 해드릴까요?" 하고 말씀드려도 한 마디로 자르셨다. "안 돼!" 처음에는 이토록 서둘러 떠나려는 까닭이 그저 급한 성정 탓이려니 했다. 알고 보니 깊은 생각 끝에 하신 말씀이다. "한 절에 주지가 둘이 있어선 안 돼요. 아니 할 말로 나 보러 오지, 주지 보러 오겠어요? 내가 있으면 주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있으면 질서가 서지 않아."

1999년 11월, 길상사 터를 선뜻 내놓은 길상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스승은 벽제 화장터까지 따라가셨다. 점심때가 되어 공양하려고 스승을 찾는데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찾다가 타고 온 버스를 살피니 스승은 차 한 잔을 놓고 절편 한 조각을 꺼내고 계셨다.

차 한 모금
절편 한 조각
고스란한 사랑.

이토록 생각을 깊이 벼린 스승이 남긴 말씀은 하나하나가 그대로 시였다. "매화는 반만 피었을 때 운치가 있고, 벚꽃은 남김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다. 복사꽃은 멀리서 바라봐야 제대로 누릴 수 있고, 배꽃은 가까이서 볼 때 그 맑음과 뚜렷함을 느낄 수 있다."

> "사랑은 따뜻한 마음
> 끝없는 관심이에요
> 사랑 없는 사람은
> 불법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씩 더 들라고. 증거인멸 해야지
옴 맛나 맛나 사바하. 세 번이야!
이슬비가 오네. 있으라고 이슬비가 오잖아!

그뿐인가. 마음 깊이 심어주려고 하는 말씀을 우스갯소리에 담아 잊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자칫 서먹서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스갯소리로 띄우기도 했다.

여럿이 둘러앉아 무엇을 먹다 보면 서로 미루다가 쟁반에 남아 있을 때가 적지 않았다. 그럴 때 스승이 "자, 하나씩 더 들라고. 증거인멸 해야지." 하고 던지는 우스개는 남김없이 먹으라는 말씀이다. 한여름 불일암 마루에서 수박을 먹고 땅에 뱉어놓은 수박씨를 치우면서 증거인멸 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는데,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개미를 무심코 밟아 죽이지 않으려면 쓸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이다.

어느 명절날 불일암. 땀을 흘리며 음식을 하는 지묵 스님 뒤로 스승이 가만히 다가와서 던지듯이 묻는다. "음식을 맛나게 하는 진언이 뭔지 알아?" 어리둥절해 하는 지묵 스님 어깨를 툭 치면서 스승이 말씀한다.

"옴 맛나 맛나 사바하. 세 번이야!"

불일암 마루 앞에 놓인 섬돌 대신 쓰던 통나무 토막이 썩어 개미가 바글바글했다. 그걸 갈려던 지묵 스님. 정랑 뒤에 놓인 나무 기둥을 보고는 잘라 써도 되느냐고 스승에게 여쭌다. 스승은 쓸 데가 있어 말리는 나무이니 다른 걸 찾아보라고 했다. 마침 큰 절에는 법당 불사가 한창이라 쓸 만한 나무토막이 제법 많았다. 그러나 도목수와 도감 스님이 서로 미루는 바람에 맥이 빠진 지묵 스님. 스승이 말린다던 나무를 잘라 섬돌을 삼는다. 나무가 어디 갔느냐고 묻는 스승에게 뒤통수를 긁으며 까닭을 말씀드린 지묵 스님. "쓸 곳이 있어서 말리는 나무라고 했는데, 말도 없이 잘라 썼단 말이야? 어허, 같이 못 살 사람이군."

꾸짖는 말씀을 나가라는 소리로 알아들은 지묵 스님. 부슬부슬 비가 흩뿌리는데, 주섬주섬 걸망을 챙기고는 군불이나 지펴 드리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부엌에 들어가 장작불을 지핀다. 그때 부엌으로 들어선 스승. 지묵 스님을 두어 번 밀치고는 뒤에서 두 팔로 꽉 껴안으며 말씀한다. "이슬비가 오네. 있으라고 이슬비가 오잖아!"

칼날 같아 보이던 스승은 이토록 마음이 여리고 속정이 깊었다.

우리가 사랑의 소산이자 사랑의 유물
사랑할 수 없다면 이미 멎어버린 심장

어느 해 부처님오신날. 정채봉 선생이 스승에게 여쭌다. "스님, 젊은 날로부터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셨지요?" 하고. 스승은 "우리가 사랑의 소산, 사랑의 유물이잖아요 사랑할 수 없다면 이미 멎어버린 심장 아닐까요? 사랑은 따뜻한 마음이며, 끝없는 관심이에요."라고 말씀하며 품어 뒀던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해인사에 살 때 병원 일을 하는 수녀님 세 분 와서 가야산 봉우리까지 갔는데, 그 가운데 한 수녀님을 보자 찌르르 전율이 흐르고, 몸이 기우뚱거릴 만큼 아뜩해지면서 가슴이 마구 방망이질해댔다고 했다. 세월이 지나 수녀님 동생이 이따금 절에 다니면서 연락이 닿아 만났는데, 그 수녀님도 스승을 만나고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고 했다.

"둘이 수도자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연예에 빠졌을 것"이라고 털어놓은 스승은 "가볍지만 흔들리는 건 당연하다. 어떤 것이 사랑 본질인가 생각할 때,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소유욕이다. 사랑한다면 그이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고,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란다고 여기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 사랑할 줄 알아야 삶에 생동감이 돌고 향기가 있다."라고 말씀했다.

스승이 사랑은 끝없는 관심이라고 했지만, 관심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짐승이 있다. 바로 나무늘보다. 아주 굼뜨게 움직여 목숨앗이 눈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이라 여긴 나무늘보는 '아무것도 아닌 것' 으로 보이려고 애쓴다. 이런 나무늘보도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구석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슬로비디오를 돌리듯이 슬그머니 나무에서 내려와 나무 밑동에다 똥을 누어 소복이 쌓아놓으며 가슴 설렐 그대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빌며 자취를 남긴다. 어떤 목숨붙이건 간에 사랑할 때 비로소 삶에 생기가 돈다.

12세기 일본 가마쿠라 시대에 살던 묘에 스님도 의상 스님을 깊이 사랑한 선묘 낭자 이야기를 그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헤아릴 수 없다"라 했다.

스승 뜻에 따라 파리 길상사 주지로 간 지묵 스님,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마침 파리를 찾은 스승에게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고 귀국길 오른 스승. 공항 게이트에 들어서면서 저만치 서서 배웅하는 지묵 스님에게 손짓하며 "가방 좀 잘 봐봐!"라고 했다. 무슨 뜬금없는 말씀인가 싶어 갸웃거리던 지묵 스님,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넘겼다. 그 뒤로 유럽이며 중국, 인도를 두루 다니면서 쓰던 여행 가방이 낡아 버리려다가 앞에 붙은 주머니를 터는데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안에서 차를 사서 조심해서 타고 다니라는 말씀이 적힌 편지와 함께 수표가 툭 떨어진다. 지묵 스님은 이 돈으로 불상을 모시고는 복장에 그 사연을 적바림해 넣는다. 부처님이 된 자동차는 그대로 사랑이다. 〈끝〉

〈법정 스님 눈길〉 저자





인도불교·유가 심성론 결과물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⑮ 선종 및 심성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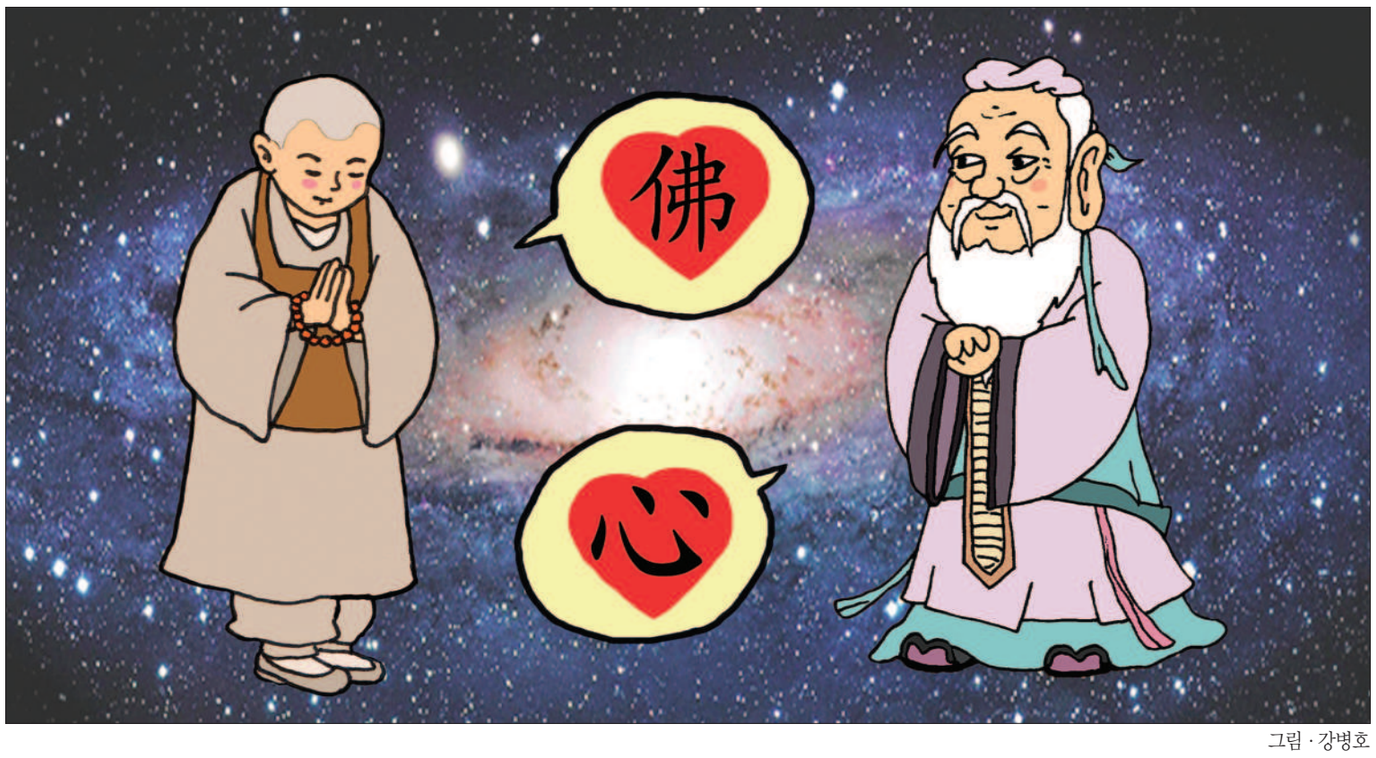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인도불교의 불성론은 주로 반야학에서 실상론이 변화 발전해 온 것이다. 인도불교의 불성론이 추상적인 본체에 치중한 것과 달리, 중국불교의 불성론이 두드러진 점은 심성을 중시한 것이다. 불성론은 초기 경전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사상이지만, 특히 대승불교가 흥기하고 석가모니부처님을 신격화하기 시작하면서, 대승불교는 인성(人性, 心性)을 주제로 한 불성(佛性)여래장 법신불 등의 사상적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중국유가사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도덕철학의 주체인 인성을 탐구하는 사유관점과 유사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다. 본래 '심성(心性)'의 문제는 중국 전통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였고, 그 근원을 소급해보면 '공맹'에 맞닿아 있으며, 맹자의 진심(盡心), 지성(知性), 지천(知天)은 중국 심성학(心性學)에 초석이 된다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심성(梵citta-prakrt, cittada)은 심(心)의 본성 혹은 실성(實性)으로, 심(心)이 본래 구비하고 있는 불가변역(不可變易)의 성질(性質)을 말한다. 중국불교 심성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도불교의 심성론이 기본 초석으로 성립되었고, 인도불교의 불성론이 전변(轉變)해서 중국에 본래 있었던 심성론과 밀접한 결합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선종의 심성론을 이해하려면 곧 중국철학의 정의(精義 · 깊고 오묘한 이치)를 깊이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수당불교를 말할 때 8대 종파를 말하지만, 가장 중국화된 불교는 천태 화엄과 선종이다. 이 3종파가 중시한 중요한 문제 역시 '심성(心性)'에 관한 것이다. 선종은 불성을 사람의 본심(本心 · 本性)이라고 했다. 선종의 심성론은 각성(覺性)으로써 심체(心體)를 해석하고, 반야지혜로서 중생심의 본성으로 삼아서 심성본학(心性本覺)을 제창하여 견성성불로 인도한다. 한편 중국선종사에 심(心)과 성(性), 체(體)와 용(用), 체(體)와 상(相)은 서로 간의 연관성 내지 상즉성(相卽性)의 범주에서 설정된 개념이다. '체용(體用)'의 관계는 이미 중국 남북조 시대에 논쟁이 되었던 철학적인 범주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철학적 개념은 사물을 관찰해내는 기본적인 개념의 설정이었다. 한편 위진철학의 범주였던 체용(體用)은 화엄학에도 깊은 영향을 주면서 범불교 속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화엄학에서 말하는 '이사(理事)'의 관계는 '체용(體用)'의 관계에서 진일보한 '상즉(相卽)' 관계에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비록 인도불교에서는 이른바 불(佛) · 불성(佛性) · 실상(實相) · 법성(法性) 등의 개념이, 때로는 상통하거나 혹은 비슷한 의미로서, 추상적이고 풍부한 본체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중국불교의 불성론은 현실적인 인간의 심성(心性)에 대해서 치중한 것이다. 그것은 중국인들의 오래된 사유관습과 현실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인 '실사구사(實事求事)'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다만 선종은 심성을 더욱더 특화를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관점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일체중생개유불성', '즉심즉불' 등과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 이 점은 인도불교에서 주장하는 추상적인 본체와는 확연히 다른 선종만의 독특한 '인성관', '불성관'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종의 이러한 인성관 불성관이 절대로 불교의 근간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한편 선종은 일체를 완전하게 심성에 귀결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다. 비교적 중국적인 색채가 농후한 또 다른 종파인 화엄종 및 천태종의 주장을 대비해 보면 더욱더 극명해진다. 이들의 불성론 관점은 매우 명확하게 하나의 '유심(唯心)'에 치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왕왕 일심(一心)으로써 미오(迷悟), 염정(染淨) 등을 설해서 중생과 부처 및 범성(凡聖)의 차이점을 논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 명칭에 대한 약간의 차이점과 수행을 지도하는 방편 및 과정이 다를 뿐이다. 다만 어느 일정 부분을 강조해서 각자 종파의 우월성을 나타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대시교의 가르침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천태종 저술에서는 자주 중도(中道) 및 실상(實相)을 불성으로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제법과 실상을 일념심(一念心)에 귀결시키고 있다. 즉 〈법화현의(法華玄義)〉에서 "심은 제법의 근본이고, 심이 곧 총이다"고 하였고 "심(心)을 쫓아서 해탈을 얻는 연고이다. 만약에 일심으로 해탈

중국불교 불성론 '심성' 중시
인도불교 심성론을 기본으로
내면의 심리 · 본성 탐구 강조

을 얻으면, 일체수로 하여금 모두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연고이다"고 했는데, 모두 유심(唯心)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화엄종의 '심불급중생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是三無差別)'이라는 문구를 보면 '유심(唯心)'의 관점이 더욱더 분명해진다. 여기서 심, 중생심, 불심은 모두 평등체로서, 근본적으로 '심'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성립할 수가 이었던 것이다. 이른바 불성은 곧 '각심(覺心)'이 되고, 곧 '반야심원(反觀心源)'하는 것으로, 이것을 선종에서는 '반관심성(反觀心性)'이라고 하였는데, 즉 "일체법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만약에 심성(心性)을 돌이켜 관하면, 마음의 근원(뿌리)이 없다. 곧 알라 만법은 모두 근본(뿌리)이 없다"고 하고 있다.

천태종에 비해서 화엄종은 유심적인 색채가 더욱더 농후하다. 〈화엄경〉을 의지해서 수립된 화엄종은 〈화엄경〉의 기본사상 가운데 하나인 '법성본정(法性本淨)' 관점에서 진일보해서 본질(理)과 현상(事)이 중첩된 일체제법이지만, 오직 '심'으로 상즉상입해서 평등원융 및 원융무애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화엄종은 "일체만법은 오직 마음의 현현으로 달리 자체가 없다. 이런 연고로 대소가 마음을 따라 회전해서 곧 무애에 들어간다"고 했고, 또 일체만법 내지 제불은 모두 "중생심 가운데 있으며, 이 중생심을 여의면 달리 불덕(佛德)이 없는 연고이다. 불(佛)은 중생심 가운데 진여를 증득해서 성불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의미는 '번뇌심이 곧 보리심이다(煩惱心卽菩提心)'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처럼 기타 종파가 유심을 강조한 경향이 있는 반면에, 선종은 기타 종파의 교리 및 논리를 답습하거나 채용하고, 선종만의 독특한 개념인 '즉심즉불(卽心卽佛)',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등으로 일체를 자심(自心) 혹은 자성(自性)으로 귀결해, 마음의 구체화를 이루는 새로운 발전 단계를 이루었다. 그 때문에 선종의 '심'은 현실에 속한 보통사람들의 '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같이 선종의 불성이론의 형성은 유가의 '심성관' 및 기타 종파의 '유심관'을 서로 흡수하고 채용해서 성립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선종의 불성사상 이해는 중국 범불교의 유심관 또는 중국의 고유한 전통사상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이해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고유한 전통문화사상은 인륜철학을 초석으로 한 도덕적 주체를 중시하는데, 이 점은 어떤 의미에서 유가 전통사상인 도덕철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특히 도덕적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인성으로 귀결된다는 관점이다. 이것은 유가의 '(내성학(內聖學)'의 강령이라고 하는 진심(盡心) · 지성(知性) · 지천(知天) · 존심(存心) · 양성(養性) · 사천(事天) · 수신(修身) 등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위의 의미는 모두 안심입명에 중요한 요소로서 내성(內聖)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전진해 가는 과정 및 수단 방법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진심(盡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심은 내심의 요구를 충분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진심의 기본 뜻은 〈고자상(告子上)〉에서 말하기를, "심은 사유하는 기관으로, 생각(思考)한즉 이를 얻을 것이며, 생각(思考)하지 않은즉 얻을 수 없을 것이다.(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고 했는데, 진심은 심혈을 기울여서 깊이깊이 사고하는 것이고, 또 〈離婁上〉에서 진심은 "(본인의)행동이 예상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반드시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고 했으며, 또 일에 장애가 생기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반드시 자기를 돌이켜 반성하고 성찰해보라는 것이다. 곧 모든 길흉화복의 출발점은 본인으로부터의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답안을 찾으라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진심은 철저하게 자심을 반사(反思)하고 성찰을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여기서 지성(知性)은 도덕지성(道德之性)으로 깊이 인성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사단심(四端心)으로 대표되며,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내재된 자질과 본성을 가리킨다. 이 도덕지성의 전개는 곧 사회성과 직결된다고 하였는데, 즉 부모, 형제자매, 연장자, 친척, 부부, 친구 등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망라한다. 봉건사회에서 오륜(五倫 · 五常: 군신(君臣) · 부자 · 형제 · 부부 · 朋友)을 기본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한다.

〈중용〉에서도 "하늘에서 부여해준 인품과 덕성을 본성이라고 한다. 본성을 따라서 일을 하고 도리를 짓는다. 인간을 양성하고 아울러 도리를 준수하게 하는 것을 교화라고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고 했으며, 〈순자〉도 "마음은 도의 주재자이다. 도라는 것은 상식적인 도리를 다스리는 것이다(心者道之主宰)"고 했다. 이같이 유가에서도 심성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점과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모두 당면한 현실세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선종은 불교의 추상적 개념인 본체를 현실지심(現實之心)으로 활용해서, 현재에 당면한 사람들의 심을 강조했다. 또 번다한 교리체계 및 사유체계의 사변적 논리 구조를 간단 절묘하게 하면서, 자아를 반사(反思) 반관(反觀) 반회(返回)하도록 해서, 생명의 존재적 가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도록 했으며, 본래면목인 본성의 주인공을 찾도록 유도하는 '명심견성(明心見性)'을 주장했다. 아마도 이러한 관점은 중국인들이 "일에 대한 도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행하기는 비교적 쉽다(知難行易)"고 하는 오래된 사유적 관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물론 불교의 핵심수행은 근본적으로 모두 내심을 탐구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지만, 특히 선종의 수행핵심은 외경에 대한 탐색보다는 오롯하게 내심의 심성문제, 즉 내면의 심리상태 및 본성을 탐구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선종은 사람들의 현세를 중시하고 차안(此岸)을 중시하면서, 심성 방면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자의 생명에 대한 본질을 자각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학자 뢰영해(賴永海)교수는 "전기 선종 이전에는 현실의 당면한 사람들의 마음을 불성으로 보았다면, 후기 선종은 항상 두루 하게 존재하는 진심(眞心)으로 불성으로 삼았다."고 했다.

〈동국대 강사〉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불교, 미얀마 고전 문학 원천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⑮ 미얀마문학과 불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찰나의 순간마다 수많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낀다. 자신의 체험과 사유 그리고 감정을 오롯이 소설 · 시 · 수필 · 희곡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문학으로 승화시킨다. '책으로 한 나라의 상당 부분을 다닐 수 있다' 고 유명한 영국의 문학가인 앤드루랭은 이야기했다. 문학은 한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을뿐더러 시대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교문학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를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불교문학은 신라시대의 향가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월명사 스님의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삶의 무상함이 불교적 세계관으로 담겨있다. 신라시대의 다른 불교 향가로는 〈도솔가〉〈원왕생가〉〈도천수관음가〉 등이 있다. 고려 시대 향가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는 〈보현십원가〉는 백성들에 의해 많이 불렸었고 〈삼국유사〉에는 다양한 불교설화가 전해진다. 그 외에도 선사들이 깨달음의 기쁨을 선적 언어로 표현한 오도송과 수필 등이 전해진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의 불교문학은 창작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법정 스님의 〈무소유〉 최인호 작가의 〈길 없는 길〉과 같은 작품은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21세기인 현재에도 불심(佛心)이 남다른 미얀마의 문학은 어떨까? 미얀마 문학은 크게 19세기 이전과 19세기 이후로 나뉜다. 미얀마는 19세기가 지난 이후에 불교적인 세계관 문학을 벗어나 다른 형식의 문학 장르를 받아들였다. 불교문학의 중심이자 시작은 미얀마 상좌부 불교의 융성함을 알린 바간(Bagan) 이었다. 바간 시대의 불교문학은 주로 짜웃싸(Kyokcā, 비문)에 기록되었는데 창작층과 관련이 있다. 바간 시대의 불교문학의 주요 창작층은 왕족과 승가였다. 주로 비문 내용은 왕족의 불심 · 공덕에 관한 찬탄 · 부처님을 찬미하는 내용과 왕들이 불교교리에 의해 정한 법이 짜웃싸에 기록되어 있다.

미얀마 짜웃싸 중 가장 가치가 있는 짜웃싸는 라자꾸마라 짜웃싸(Razakuma Kyokcā)이다. 네 기둥에 한 기둥 마다 빨리어(Pali), 몬어(Mon), 미얀마어(Myanmar), 뿌어(Pyu)로 서술되어 있다. 라자꾸마라는 바간 왕조의 짠싯타 왕의 아들이었지만 직접적으로 왕위 승계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효심 가득한 마음을 부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작성했다. 미얀마 문학의 또 다른 특징은 왕족들의 연대기를 기록한 역사서에 불교적 내용이 가미가 되었고 또 다른 형태의 미얀마 문학으로 발전했다. 미얀마의 시문학은 부처님의 전생담을 기록한 자타카(Jātaka)를 기반으로 창작되었다. 자타카에서 영감을 얻어 지은 시의 형식을 뽀(Pyo)라고 한다.



불교에 바탕을 둔 미얀마 문학작품 상당수가 비문에 새겨져 있다.



라자꾸마라 비문1



라자꾸마라 비문2

> 바간시대, 불교문학 전성기
> 주요창작층은 왕족과 승가
> 미얀마 전역 불교설화 분포
> 지금까지도 구전으로 계승



싸단 동굴(Sadan Cave)의 모습.

미얀마 문학의 또 다른 차별점은 불교설화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 미얀마 전역을 여행하다 보면 불교유적 전설 전문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한국에서는 불자라도 한국의 절과 탑에 얽힌 전설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많지 않다. 같이 여행하던 어느 날, 미얀마 친구에게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파고다에 얽힌 이야기를 책도 보지 않고 다 알아?' 라고 했더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자연스럽게 전해 들어!' 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얀마에서는 아직도 불교 전설이 과거와 같이 구전(口傳) 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미얀마 파안(Hpa An)에 갔을 때 친구 아버지께서 해준 싸단 동굴의 전설이 기억난다. 이 동굴은 부처님 전생담과 관련이 있다. '싸단 동굴(Sadan Cave)' 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코끼리였을 때 죽기 전 마지막으로 지냈던 동굴이다.

'마을의 왕과 왕비는 동굴 속에 사는 코끼리 왕의 상아를 갖고 싶어 했다. 상아의 욕심이 난 왕과 왕비는 코끼리를 잡는 사냥꾼을 고용하였다. 사냥꾼은 코끼리를 잡기 위해 화살을 쏘았고, 코끼리는 자신을 지키는 친위대가 있었지만 사냥꾼의 화살에 기꺼이 맞아줬다. 상아를 뽑기 위해 사냥꾼은 안간힘을 썼지만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될 코끼리여서 쉽게 상아가 뽑히지 않았다. 그때 코끼리가 사냥꾼에게 "왕의 부인이 갖고 싶다고 하면 내가 나의 상아를 주겠다"라는 말을 남기며 사냥꾼에게 상아를 내주고 죽었다.'

코끼리 왕의 전설이 내려오는 이 동굴에는 현재 불상과 탑이 건립되어 코끼리 왕의 전설을 기리고 있다. 부처님 전생담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가 미얀마에 살아 숨 쉬고 있다. 그 중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유명한 미얀마 전래동화가 있다. 두 이야기 모두 부처님의 전생담에 기반을 하고 있다. 한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전생에서 지혜롭지 못했던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이야기가 전해진다.

전생에서 지혜롭지 못했던 이야기는 '위딴디야 민지(Waitandayar Mingyi, 위딴디야 왕)'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나라의 왕이었던 위딴디야는 숲에서 명상을 하며 남은 생을 지내고 싶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위딴디야 왕에게는 부인과 딸과 아들이 있었다. 가족들은 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싶어서 왕과 함께 산속으로 따라 들어갔다. 부인과 자식들은 숲속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집에 두고 부인은 산으로 먹을 음식을 찾으러 나간 사이에 위딴디야 왕에게 한 남성이 찾아왔다. 그 남자는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 보시를 해달라고 했다. 위딴디야 왕은 줄 것이 없어 자기의 자식을 내주었다. 남자는 위딴디야 왕의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학대를 하며 앵벌이를 시켰다. 이를 본 위딴디야의 아버지는 자신들의 손주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아이들을 데려갔던 남자는 죗값으로 급하게 밥을 먹다가 사망하게 되었다.'

위딴디야 왕의 지혜롭지 못했던 보시이야기를 통해 미얀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보시는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보시해야 한다' 며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지혜로웠던 시기의 마허다따(Mahawdatar) 이야기다.

'어느 마을의 마허다따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지혜롭고 총명해서 다음 생에는 부처님으로 될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다. 마을에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서로가 물건을 갖고 싸우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마허다따가 지혜롭게 해결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줬다.'

마허다따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지혜롭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해결해 줘야 한다는 교훈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미얀마 문학은 영국 식민지 시기의 지배를 받았을 때부터 다른 주제를 가지고 문학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부처님의 전생담, 부처님의 교리, 파고다 건립 이유,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공경 등 불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소설, 시, 전설, 동화 등이 창작되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들었던 전래동화, 학교에서 배운 문학작품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서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집에서 듣고, 여행을 가며 전설 속의 유적지를 실제로 보며 자란 미얀마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떨까? 미얀마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미얀마 불교 문학을 읽고 한 번 떠나보자. 상상하던 그 이상의 불국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양곤대 박사과정〉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5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물속의 달과 같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㉚ 무의도인

"어쩌다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활용하는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부처님의 그윽한 뜻(玄旨)을 아는 사람이니라. 부처의 경지에서는 '내가 부처의 경지다' 라고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부처의 경지는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이 경계를 타고 나올 뿐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게 부처를 찾는 길을 묻는다면 나는 곧 청정한 경계로 응대하고 어떤 사람이 내게 보살을 묻는다면 곧 자비의 경계로 응대하며,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묻는다면 곧 깨끗하고 오묘한 경계로 응대하며, 어떤 사람이 열반을 묻는다면 고요한 경계로 응대해 주느니라. 경계는 천차만별이지만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에 응하여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물속의 달과 같다고 하느니라."

우두법융(牛頭法融, 594~658) 선사가 남긴 말에 "경계를 좇아가는 사람은 하근기(下根機)며 경계를 물리치는 사람이 상근기(上根機)다"고 한 말이 있다. 선 수행을 하는 자가 외부의 바깥경계에 끌려가서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무심해야 도(道)에 합해진다는 무심합도문(無心合道門)을 주장한 우두선의 요지를 설명한 말이다.

이 장에 와서 임제는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경계를 타고 노는 사람이 부처님의 그윽한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무의도인은 부처에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의 경지에서는 내가 부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하였다. "내가 부처다"고 말하면 나는 부처에 의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의도인이 아니다. 생각이 쉬어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지 않는 경지가 의지함이 없는 경지다. 이 경지에서는 무어라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름과 형상으로 말하는 것은 부득이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만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라 물속의 달과 같다 하였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응용할 뿐 응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무의도인이다.

이 무의도인이 실은 부처님의 참된 법신이다. 금광명경(金光明經) 사구송(四句頌)에 "부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아 사물에 응하여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물속의 달과 같아 아무런 장애가 없다.(佛眞法身 猶如虛空 應物現形 如水中月 無有障礙)"고 하였다.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히고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는다(見色明心 聞聲悟道)"는 말이 있다. 보고 듣는 경계가 마음을 밝히고 도를 깨닫게 하는 매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보고 듣는 외부 경계가 깨달음의 계기를 부여해 준다는 말이다. 그런데 범부들은 보고 듣는 경계에 끌려가 분별심을 일으켜 미혹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경계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부설거사의 송(頌)으로 알려진 사구송(四句頌)이 있다.

目無所見無分別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이 없고

耳聽無聲絶是非 귀로 들어도 소리가 없으니 시비가 끊어지네.

分別是非都放下 분별과 시비를 모두 놓아버리고

但看心佛自歸依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의하라.

엄양존자(嚴陽尊者)라는 사람이 있었다. 소문을 들으니 조주(趙州) 선사에게 가서 뭐든지 물으면 "놓아버리게(放下著)" 이 말 한마디를 해준다고 하였다. 그는 조주 선사를 찾아갔다.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가져온 사람은 무엇을 놓아버립니까?"

그 물음에도 조주 선사는 또 "놓아버리게" 하였다.

엄양이 다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합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게나"

이 말에 엄양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엄양은 물어볼 말을 미리 준비하고 갔던 것이다. 무심이 되지 못하고 유심으로 찾아갔던 것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색'은 곧 실상의 음적 묘유현상

〈實相〉 〈陰的〉 〈妙有現象〉



세상 속 경전읽기

㉚ 묘유현상(妙有現象)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 레우키포스(Leukippos)는, 세상을 '비어있는 공간(Kenon)' 과 이를 채울 '충만한 것[Atom, 원자(原子)]' 으로 나누었다. 아주 작아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으며 단단한 원자는 무수히 많으며, 비어있는 곳을 움직이고 있어, 허공 안에서 일어나는 원자의 재배열로 세상의 다양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의 제자 데모크리토스(Democritos, BC 460? ~ BC 370?)는 원자의 운동과 다원성을 거부하지 않았고, 원자들이 허공에서 모였다 흩어짐을 반복하며 집적하고 여기에서 불, 물, 공기, 흙이 탄생한다고 여겼다. 근대 과학에 있어서는 19세기 초에 돌튼(Dalton)에 의해 원소의 최소 단위로서 원자가 도입되었다.

1803년 영국의 화학자 돌튼이 제안한 원자설은, '1)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작은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2) 같은 원소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 등 모든 성질이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성질이 서로 다르며, 3)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4)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자들이 간단한 정수비로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는 것이다. 이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원자는 불가분의 것이 아니고,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고, 원자보다 더 작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을 소립자(素粒子)라 하였다. 가장 먼저 발견된 소립자는 전자이고, 뮤온(Muon), 중성미자[Neutrino], 반중성미자[Antineutrino], 쿼크(Quark), 타우온(Tauon), 힉스(Higgs) 등 현재는 약 300여 종의 많은 소립자가 알려져 있고 소립자는 생성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색[色, 물질]의 궁극은 공상(空相)인 원성실(圓成實)의 일상(一相)이고, 색이란 곧 실상(實相)의 음적(陰的) 묘유현상(妙有現象)이라고 한다. 묘유의 극치인 비공비유[非空非有,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님]의 경계를 인허(鄰虛)라 하고, 이는 5안 중 혜안(慧眼)으로 볼 수 있다. 인허의 7배인 궁극적 물질[色究竟]을 극미[極微, paramâṇu]라 하고, 극미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극미는 8사[八事, 地水火風 四大와 6경(境)중 색향미촉(色香味觸) 4경]을 갖추고 있다.

"색취[色聚, 색의 무더기]로서 지극히 세밀한 것을 '극미(極微)' 라고 이름하니, 이는 이보다 더 이상 미세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미취(극미)는 욕계(欲界)에서, 소리[聲]가 없고 근[根, 신근, 안근 등]도 없을 때에는 8사(事)가 함께 생기[俱生]하는데, (8사 가운데) 하나도 멸하는 일이 없다."

〈阿毘達磨俱舍論 T1558_.29.0018b22-24〉

극미의 7배인 미진[微塵, 미(微), aṇu; 대수로 7을 곱하기보다, 공간적으로 중앙 1극미의 상하좌우전후에 각 1극미씩 6극미를 붙인 7극미]은 천안(天眼)으로 볼 수 있다. 7미진인 금진[金塵, loha-rajas]은 금(金) 속을 장애 없이 자유왕래하는 정도로, 수행인의 육안으로 볼 수 있다. 7금진인 수진[水塵, ap-rajas], 그리고 순차로 토모진[兎毛塵, śaśa-rajas], 양모진[羊毛塵,avi-rajas], 우모진[牛毛塵, go-rajas], 극유진[隙遊塵, 일광진(日光塵, vātāyana-cchidra-rajas]으로 7배씩 증가한다. 일광진은 벽틈이나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보이는 부유물(浮遊物)로서 색구경인 극미의 823,543[77]배이다.

이로써 각각의 양을 상상할 수 있으나, 미(微)를 쌓아 작은 데서 큰 것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색온(色蘊)의 소멸하는 정도를 보인 것으로 아공법공(我空法空)을 이루기 위한 석공관[析空觀, 모든 현상을 분석하여 거기에 불변하는 실체가 없으므로 공空이라고 주시함] 수행으로,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을 알아맞힌 후 〈반야심경〉을 꿰뚫어 보도록 한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㊻ 닦음의 길 16

간화, 말머리 본다는 것

〈看話〉 〈話頭〉 〈看〉

오늘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간화선(看話禪)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800년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전통이자 근간이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위빠사나, 아나파나사티 등 다양한 수행법의 소개로 그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간화선의 위기라는 말 또한 많이 회자되고 있다. 간화선은 오늘의 한국불교를 있게 한 경허, 만공, 효봉, 구산 등의 선사들을 깨침의 세계로 인도한 수행법이다. 간화선의 전통이 끊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화두를 참구(參究)하는 간화선은 송나라 때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가 개발한 수행법으로 전통적인 붓다의 수행체계와는 성격이나 내용이 많이 다르다. 대혜의 행적을 담은 〈대혜어록(大慧語錄)〉은 흔히 〈서장(書狀)〉이라 불리는데, 지금까지 승가대학이나 강원에서 주요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간화선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인물은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이다. 지눌의 뒤를 이은 진각혜심((眞覺慧諶, 1178~1234)은 이를 더욱 체계화했으며, 지금까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으로 자리하고 있다.

간화(看話)란 글자 그대로 화두를 보는 것이다. 화두를 공안(公案, formal document)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그 내용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정부의 문서를 가리킨다. 그만큼 공안이 깨침을 이루는 데 공신력을 가진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간화, 즉 말머리(話頭)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는 선사가 하는 말(話)의 핵심(頭)을 곧바로 알아차린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말에 담긴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뜻을 즉각적으로 깨친다는 것이다. 흔히 대화를 할 때 '말꼬리를 잡는다.' 고 하는데, 이는 핵심에서 벗어나 말 자체에 집착하여 따지는 것을 말한다. 화두는 말꼬리를 잡고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말머리를 통해 핵심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수행이다.

간화선은 깨침에 이르는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말 한 마디(言下)에 깨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화두선을 경절문(徑截門), 즉 지름길이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마치 선생님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만 듣고도 곧바로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알아채는 것과 같다. 보통 사람들은 쉽게 흉내 내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간화선은 뛰어난 근기의 수행자에게 적합한 수행체계라고 평가한다.

대표적인 선사들의 공안집으로는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의 〈벽암록(碧巖錄)〉이나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의 〈무문관(無門關)〉 등이 있다. 오늘날까지 1700 공안이 전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자(無字)', '이 뭐꼬?(是什嗎)' 등의 화두가 많이 유행하였다. 특히 무자 화두를 통해 견성에 이른 선사들이 많다. 이 화두는 당나라 말기의 유명한 조주종심(趙州從諗, 778~897) 선사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없다(無)' 라고 답한 데서 유래한다. 스승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받은 수행자는 조주 선사가 왜 무(無)라고 했는지 '무, 무, 무' 하면서 끊임없이 참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머리를 타파하고 견성(見性)에 이른다는 것이다. 화두는 전통적으로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쳐다보고 닭이 알을 품듯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으면 화두를 타파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선가(禪家)에서는 동정일여(動靜一如), 몽중일여(夢中一如), 숙면일여(熟眠一如)의 세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견성에 이른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거나 고요히 앉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꿈을 꿀 때와 숙면할 때도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있어야 자신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 라는 굳건한 믿음과 용맹정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에 좋은 약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별다른 소용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화선이 훌륭한 수행체계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양한 수행법들의 소개로 간화선이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을 말머리로 삼아 참구할 때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매순간 변화 느낌 행선의 시작

명상書 톺아보기

정준영 교수의

'위빠사나 이야기-있는 그대로'

〈4〉 마하시 위빠사나의 기본수행법 2



걸으며 하는 수행

걸으면서 하는 수행은 매우 중요할뿐더러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불교수행이 정적인 좌선 뿐만 아니라, 동적인 여러 움직임을 통해서도 이행된다는 사실을 행선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걸으면서 그때그때 마음 모으는 훈련을 통해, 산만하던 마음을 조절하는 힘을 키운다. 이처럼 걸으면서 하는 수행은 좌선의 예비 수행이 될 뿐만 아니라, 주시의 영역을 넓혀준다. 위빠사나가 생활 수행으로 확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행선의 기본자세와 기본동작

좌선 못지 않게 행선에서의 자세도 중요하다. 수행자는 머리를 숙이지 않고 턱을 들어 허리를 바르게 세운다. 시선은 발끝으로부터 약 3~4m 전방에 둔다. 그러면 눈은 반쯤 감은 상태가 되고, 시야도 좁혀져 외부 자극으로부터 일정부분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손은 걷는 도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앞이나 뒤로 모아 잡는다.

걷기는 가능한 평소에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으며, 걷는 발의 동작과 느낌에 마음을 일치시켜 주시한다. 이때 보폭이 너무 넓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칫 보폭이 너무 넓으면 걷는 도중 자세가 흐트러 질 수 있다.

행선의 기본동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오른발' '왼발' 의 두단계이고, 두 번째는 좀 더 천천히 걷는 '들어서, 앞으로, 놓음' 의 세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천천히 걷는 '듦, 듦, 듦' '밂, 밂, 밂' '놓음, 놓음, 놓음' 의 아홉단계이다.

주시의 대상을 넓혀가는 3가지 행선법

걸으며 하는 수행을 행선이라고 부른다. 행선은 자연스럽게 걷는 2단계, 천천히 걷는 3단계, 더욱 천천히 걷는 9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로 주시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는 명칭을 붙이는 개수에 의한 구분이지, 행선의 수준을 평가하는 구분은 아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보폭을 좁혀 주는 것이 좋다.

수행자는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는 발목 아래서 느껴지는 느낌에 대한 주시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발의 동작과 부르는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자처럼 천천히 힘을 빼고 걷는 것도 방법이다. 위빠사나 수행에서는 실제하는 느낌을 주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초보 수행자들은 주의를 모으고 망상을 줄이기 위해 이름 붙이기를 활용한다.

가장 기초적인 걷기 방법에서 수행자는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왼발을 내디디며 '왼발' 오른발을 내디디며 '오른발' 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면서 한발한발 주시한다. 이때 발바닥이 닿는 감각의 알아차림과 더불어 마음속으로 붙이는 이름과 동작이 일치하도록 해야한다. 이 단계의 행선법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평소에 걸을 때 산행이나 산책을 할 때 걷기운동이나 러닝머신 위를 걸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추운날 빙판길을 걸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른발, 왼발' 의 두 단계 행선법을 통해 몸과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좀 더 천천히 걸으며 주시의 대상을 늘린다. 이 때 사용되는 것이 '들어서, 앞으로, 놓음' 의 세 단계 행선법이다. 세 단계로 할 때는 왼발을 '들어서, 앞으로, 놓음' , 오른발을 '들어서, 앞으로, 놓음' 으로 주시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행자가 부르는 명칭과 발의 동작이 일치하는 것이다. 마음이 발의 동작에 밀착되지 않으면 명칭과 동작이 일치하기 어렵다.

또한 발을 통하여 느껴지는 느낌에 대한 주시 역시 중요하다. 초보 수행자의 경우 가능한 발목 아래에서 느껴지는 느낌에 집중한다. 발이 바닥에서 들릴 때의 가벼움, 내려질 때의 무거움 뿐만 아니라 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의 시원함,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을 때의 단단함, 끈적임, 차가움, 따뜻함, 움직임 등의 느낌들을 놓치지 않고 면밀하게 주시한다. 다양한 느낌들이 복합적으로 빠르게 경험될 때에는 각각의 이름을 붙이기보다

> "발목 아래 느낌 주시 후 행위 전 의도까지 주시 생각 확장이 망상 번져 주시 대상에만 전념해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걸으며 하는 수행을 할 때 망상이 일어나 주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발이 바닥에 붙어 있을 때에는 접촉에 의해 느낌을 주시하기가 수월하지만 발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는 느낌이 분명하지 않아 망상이 들어오기 쉽다. 주로 발이 떠 있을 때 붙이게 되는 3단계의 명칭은 망상이 들어올 틈을 줄여주게 된다.

어떤 수행자는 '들어서, 앞으로, 놓음' 이라는 명칭에 의해 걷는 동작이 구식 로봇처럼 부자연스럽게 진행되기도 한다.

만약 주시가 어려우면 관찰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한쪽 벽에서 맞은편 벽까지 걸어갈 때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다. '저 앞의 벽에 다가갈 때까지 나는 발의 무게감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겠다.' 한 가지만을 대상으로 시작하면 부담이 줄고 주시가 수월하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다시 돌아 이번에는 '저 앞의 벽에 다가갈 때까지 발바닥의 단단한 느낌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겠다.' 발바닥의 단단함 관찰과 더불어 목적지에 도달하면 다시 돌아 모두를 주시한다. 점진적으로 온도, 끈적거림 등으로 주시의 대상을 늘리고 확장하는 방법이다.

수행자가 두단계, 세단계를 통해 주시의 힘이 강해지면 행선은 아홉단계로도 진행할 수 있다. 아홉단계는 '들어서, 앞으로, 놓음' 의 각각 과정을 다시 세단계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다. 수행자는 왼발을 들면서 '듦, 듦, 듦' 이라고 이름 붙이며 발을 드는 동작의 시작, 중간, 끝이 있음을 나누어 주시한다. 그리고 앞으로 밀면서 '밂, 밂, 밂' 이라고 이름 붙이며 발을 미는 동작에도 시작, 중간, 끝이 있음을 나누어 주시하고 끝으로 발을 내려 놓으며 '놈(놓음), 놈, 놈' 으로 이름 붙이며 발을 놓는 동작에도 시작, 중간, 끝이 있음을 나누어 주시한다.

이 과정에서도 세 단계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발을 들 때, 내릴 때 그리고 바닥에 닿아 있을 때에 나타나는 모든 느낌을 놓치지 않고 주시해야 한다. 특히 발이 바닥에 닿은 후부터 다시 들릴 때까지의 발에서 나타나는 느낌들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지속하면 세 단계로 나누었던 한번의 '듦' 에도 시작, 중간, 끝이 있음을 보게 된다. 결국 모든 걸음이 일관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변화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

핵심포인트, 몸의 특징 관찰

수행자는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물질에 다름 아닌 몸의 특징을 알게 된다. 초기불교에서 설명하는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색으로 마음은 수, 상, 행,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 수행자는 행선을 통해 이러한 특징을 주시하게 된다.

수행자는 행선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발목 아래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주시해야 한다. 이것이 숙달되면 명칭과 동작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숙달되면 면밀한 주시뿐만 아니라 행위를 하기 전 '의도' 가 일어나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수행자는 의도가 일어난 다음 동작하는 것을 분명히 알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느낌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다.

행선 중 주의할 점과 행선의 이득

수행자는 행선을 통해 몸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수행자가 경험을 통하여 사대를 관찰하되 사대를 생각으로 알아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행자가 행선 중에 바닥의 단단함을 주시했다면 '단단함, 단단함' 이라는 느낌을 주시하는 것으로 임무를 끝내야지, '단단하구나, 내가 지금 이 지대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 수행자가 자신의 경험을 교리적인 내용과 결부시킬 때, 그 순간 그는 주시의 대상을 놓치게 된다. 즉, '단단함' 이 '지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행자는 이미 주시를 놓치고 망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수행이 잘되고 안되고를 판단하는 순간 대상은 이미 놓친 것이다. 가능한 주시의 대상에만 전념하는 것, 이 것이 수행자의 역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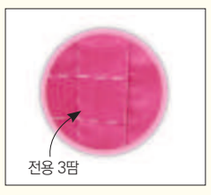
초기경전에서는 행선에 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수행자들이 졸음을 극복하는 데 행선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붓다가 낮이고 밤이고 행선을 하였고, 비구들 역시 그룹을 지어 행선했다고 한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 깨달음을 성취한 자도 행선을 꾸준히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

행선이 가져다주는 이익으로는 육체적 건강, 소화 작용 향상, 집중력 유지도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걷기를 건강 유지를 위한 정도로 활용하는데 불교는 이미 2500년 전부터 행선을 통해 육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개발하고 유지했다. 이처럼 걸으며 하는 수행은 앉아서 하는 수행의 보완적 역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GM SOFT since 2015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04호 | 15 | 전면광고

자기나 남을 위하여, 재물과 오락을 위하여
거짓으로써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늘에 태어나는 길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똑소리나게 풀어냅니다.
짧은시간에 완전 이수되며 섬세하게 누구나 풀수 있구요.
▶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타고난 인생, 인체의 병, 영가, 일년신수, 왜! 원인과 해결)
▶ **과거/현재·미래·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스님, 철학인, 법사 등 대상
왕초보 22강 진행(속성반 7강 진행)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010-2901-8923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①네이버
운명자가진단 손금보기
②유튜브
손도사 동영상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먹으로쓴 반야심경8폭병풍 소장하실 불자님 연락주십시요
지리산감나무골 운송도암
010-9208- 3835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010-8833-4416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대방광불화엄경 사상강연회!!
1. 초발심자가 문득 정각을 이루는 원리?
2. 중생이 금생에 성불하는 방법?
3. 세계적 대질병에 대한 법신불의 대약수는 무엇?
4. 교재는 「대방광불화엄경의 진실한 뜻을 밝힌다」
5.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6. 장소 : 예인스페이스(강남역 10번출구, 외환은행 뒷편 4층)
문의전화 ☎ 010-9150-1044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생각대로 되는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1일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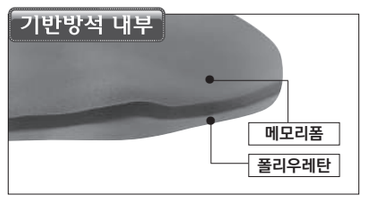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백양산 구화사
• 주 지 : 지성 (속명 / 이상봉)
•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641-26
• 승 번 : 09-08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과
수행종풍이 맞지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국제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04호 | 16 | 전면광고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모두 방편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부처님 말씀 읽기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500평
◎ 건물3동
◎ 북한산차량진입
◎ 매가 : 8억1천5백

◎ 위치 : 경기
◎ 부지 : 210평
◎ 건물 : 대웅전,요사
◎ 신도시중심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0-3162-337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 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 19평. 공양간.방1개.7평 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 대지 : 60평 / 법인양도 가능
- 법당, 요사, 접견실, 나한전, 차고
- 도심포교 요충지(시설.비품 일체)
- 양도 또는 산중 사찰교환가능
- 양도가 : 3억 4천 (보시고 절충)

010-7763-44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1300년 고목,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4990

사찰·기도(터) 안내

- 위치 : 김해 선안다리 5분거리
- 물건 : 260여평, 법당, 요사, 종각
- 주변이천세대, 시세 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만원(은) 2억3천 포함
- 부산 장림역 1km 토지 5천여평
- 신촌초 옆 주거지 1천여평 포함
- 가액: 7억5천(은)3억3천 포함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다수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9150-2284

아주 오래된 전통암자 안내

- 충북 괴산,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시장, 학교
- 종교용지, 등기 900평(1천평 사용)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 신도있고 공원같이 아름다운 암자
-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합니다.
- 1억 5천 안고 3억 3천
- 합 4억 8천(절충가능)

010-3535-7906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 11동. 무건물. 법당 25평. 2017년 건축 ● 현재사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주차장) ● 가액 : 3억 5천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문화재사찰
- 위치: 부산 최고의 바다전망
- 대지500평, 임야3600평
- 법당 산신각 천불전 요사체
- 가액 23억
- 스님건강상 매도

010-2104-2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 수락산역 등산로입구 (먹자골목)
- 약 30평 / 방3 / 법당 별도
- 총3층 건물 3층(옥상사용)
- 보증금 5천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5백만원

※ 불교서적 1천권 무료드림

010-5656-27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동 유황사우나앞 도로변 3층
- 평수 : 50평, 방 3개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 시설비 없음

010-9110-3301

멋진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 (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임대 안내

- 위치 : 포항호미곶(전망좋음)
- 대지 : 23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전세 3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완비)몸만 오시면 됩니다.
- 꼭 하실분 절충가능

054-482-66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사거리 시장부근
- 2층건물 2층 20평 남향
- 보증금 3백만원 월 50만원
- 권리금, 부가세 없음

010-5381-1419

좋은법당안내

- 위치 : 일산서구 큰도로 정류장앞
- 평수 : 약50평, 2층건물 2층, 삼존불 모심
- 전세 1천만원, 월세 60만원
- 기타시설비 보시고 결정
- 본인 건강때문에 인연 닫는 분께 양도

010-4029-515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천수천안사,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50만원
- 시설금 2천 5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사찰(암자)안내

- 위치 : 세종시 전의면 (청정도량)
- 대지 : 550평, 삼성각4평 목재
- 건평 : 대웅전 24평 목재
- 요사채 : 약 30평, 황토방 10평
- 가액 : 6억 5천
- 주차장시설 완비

010-6768-7169

속초시앞바닷가

- 위치 : 속초시조양동b.블럭 바닷가조망권23m.약7평한라리세컨하스311호
- 수익형2020.10월입주
- 분양가1억8천7백6십7만7천원
- 연수익8.87%등기가
- 대출금1억잔금실입주금6천만 분양가로드립니다

010-3184-5362

◑ 입 종 안 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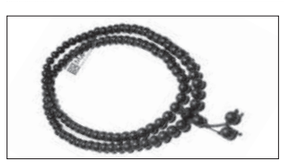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실천이 없다면 이건 죽은 불교지 산 불교가 아닙니다

… (녹음 안됨)

"기우제를 지내려면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지내면 됩니다." 하고 나라에다 고했습니다, 힌두교에서. 그래서 나라에서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선 이 스님네들한테 청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댑니다. 한쪽은 청해 올라갔고 한쪽은 청해 올 때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란 것은 아닙니다. 역시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간에 그건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하는 일이고 진리이니까 그러겠지마는 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쌈이 붙었던 거죠. "너희가 해 봐라.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하겠다. 기우제를 지내고 안 지내고 간에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우리도 기우제를 어찌 지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해 보고 비가 안 온다면 우리가 그때 하겠다." 하고서 쌈이 벌어졌죠. 그 기우제를 지내는 데는 세 개의 탕을 해 놓고서는, 옷을 다 벗고 목욕재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과일서껀 깨끗이 씻어서 사람이 쭉 늘어서 가지고선 받아서 이렇게 해서 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단으로부터 중단, 상단으로 씻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갖은 물건을 다 해 놓고서 기우제를 사흘이나 지내도 비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재차 또 사흘을 지내도 안 와서 재차 또 사흘을 지내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우제는 다 끝났죠.

그런데 이 스님네들이 "너희들은 우리 기우제 지내는 걸 와서 구경을 해라." 했습니다. 그러고선 스님네들은 부처님한테 가서 여쭸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데, 힌두교에선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기우제를 지내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여쭤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선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니까 "그 힌두교의 스님네들을 위해서 내가 기우제를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마."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떼 놓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그, 뭐라고 말을 할까. 말로 할 수 없으리만큼 성스러웠습니다.

그러시다가, 척 걸으시다가 딱 중단하시고는 앉아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떡 하나라면…." 하셨습니다. "이 떡 하나라면 기우제는 다 지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스님네들은 망발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별안간에 천둥 번개를 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철철 와서 갈라진 땅을 메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힌두교 제자들 한 대여섯 명이 부처님 앞으로 공부를 한다고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부처님께서 정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정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들어서 정법을 써 보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곤 또 입을 딱 다무시는 겁니다.

그 힌두교에서 온 사람네들은 거기서 수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을 지내도 도무지 그것이 자기네들한테는 확연히 씨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 저쪽 편 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으르렁으르렁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으로 치면 총무 스님이 부처님한테 고해서 그 네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어디로 내보냈느냐 하면 "너희들이 더 했느니 덜 했느니, 많으니 적으니 하고 싸우는데 네 사람이 나가서 탁발을 하되 너희 재주껏 탁발을 해 가지고 오너라." 하고 네 사람을, 힌두교에서 온 사람들을 다 내보내면서 한 사람만 딱 더해서 보냈습니다. 그래 다섯 사람이 탁발을 하러 나갔습니다. 제각기 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공부 가르치는 것도 참 천차만별로 그렇게 다사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내보냈는데 한 사람은 농사짓는 데를 갔습니다. 어느 골짜기로 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논을 갈고 있어요. 논을 가는데 그렇게 말라빠진 노인이 큰 황소를 밀고 나가려니까 힘이 들어서 쩔쩔매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스님이 그걸 자기가 쥐고 다 해 드렸더니 거기서 그 대가로 보시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한 것을 받아 가지고 걸망에 넣고 짊어지고 흥녀케 절로 왔습니다.

한 분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상인들 있는 데로 갔습니다. 상인들이 양을 여덟 마리를 놓고 파는데 어떤 사람이 양을 돈을 주고 사긴 샀는데 사다 보니까 여덟 마리가 그만 뿔뿔이 헤어져서 다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스님이 그걸 보니까 안됐어서 여덟 마리를 다 붙잡아서 한데 모아서 그분에게 줬습니다. 고마웠다고 또 보시금을 주니까 또 넣어 가지고 절로 흥녀케 왔습니다.

한 분은 또 딴 데로 갔는데 아, 어딜 가려고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문 앞 추녀 끝 밑에서 밤을 새우고 가려고 앉아 있으니까 안에서 왁자지껄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선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아, 화가 난 듯이 문을 박차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박차고 나오는 사람더러 물었죠. "어째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사 형제가 있는데 부모가 놔두고 가신 유산이 있어서 사 형제가 다 나누었는데 딱 한 가지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던 바, 한 가지 나누지 못한 거는, 그 집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를 나누어야 할 텐데 그걸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누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나누기는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습니까?" 하니까 "네 다리가 있는 거를 한 다리 부분, 한 다리 부분, 한 다리 부분, 한 다리 부분 넷으로 짜개어서 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는데 글쎄, 오늘 쌈 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쪽 다리 한 부분이 그만 다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솜을 처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만 거기 불이 붙어선 그 좋은 물건이 다 타 버렸습니다." 이거야. 이런 데선 안 그렇지만 거기에는 방에다가 불을 넣는 그런 이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한 부분 맡은, 다리 다친 부분의 그 사람이, 동생이 타 버린 거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쌈이 붙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자고 그랬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이 스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분이 다 앉아서 들으십시오." 하고 스님이 조용히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이 다리나 이 다리나 이 다리나 이 다리나 한 다리 가지곤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 다리도 여기 동조를 했고, 당신 다리도 동조를 했고, 당신 다리도 여기 동일하게, 망본 놈도 도둑놈이고 또 도둑질한 놈도 도둑놈이고 그러니까 전부, 도둑질을 한 놈이 다 바로 이놈입니다. 그러니 이 네 다리는 사 형제분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거든.

"그러니 이것은 누가 물고 누가 더 내고 갚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까, 사실은 들어 보니까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 남기신 거를 올바로 정리해서 주고 서로 웃고서 화합이 되게 그 집안을 이끌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서. 그래서 그 스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덕분에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사 형제가 엇각이 나질 않고 살게 됐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했기에 받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 절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한 분대로 어디쯤 가니까 말입니다, 어느 집에 닭이 생전 울지를 않더랍니다. 새벽이 되면 닭이 울어야 할 텐데 닭이 울지 않는다고 아주 주인이 한 성화를 했습니다. 닭이 울어야 새벽이면 일어나서 논에 물도 주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닭이 울지 않으니 도대체 우리가 닭을 갖다 놓기만 하면, 딴 데서는 우는데 우리 집만 갖다 놓으면 울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스님, 이 노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스님은 "닭이 울게 하려면,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나 자신과 그 닭 자신하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아침이면 꼭 당신을 깨워 줄 겁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튿날 아침에 "꼬꼬댁"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기뻐서 그냥 보시금을 듬뿍 당나귀에다 하나 가득 실어서 줬습니다. 옛날에는 당나귀가 아니라 그때에 거기에서는 수레에 실어 줬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어디를 가다 보니까 인군이 참, 예전에는 아마 코끼리를 타고 다녔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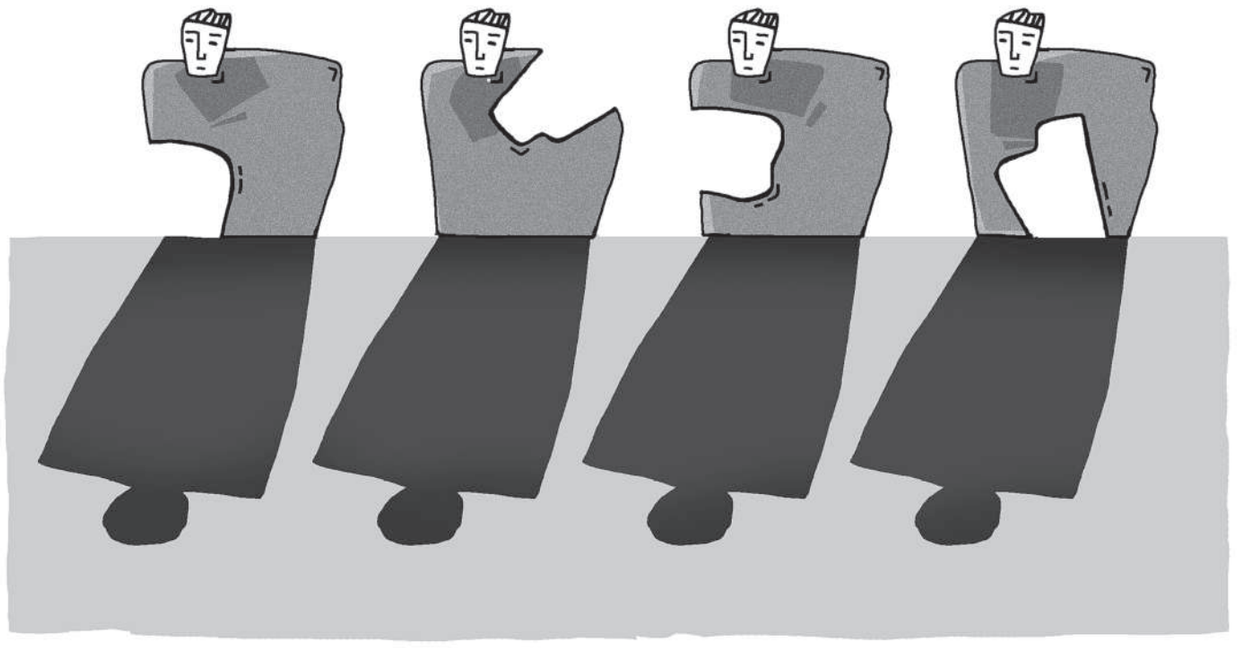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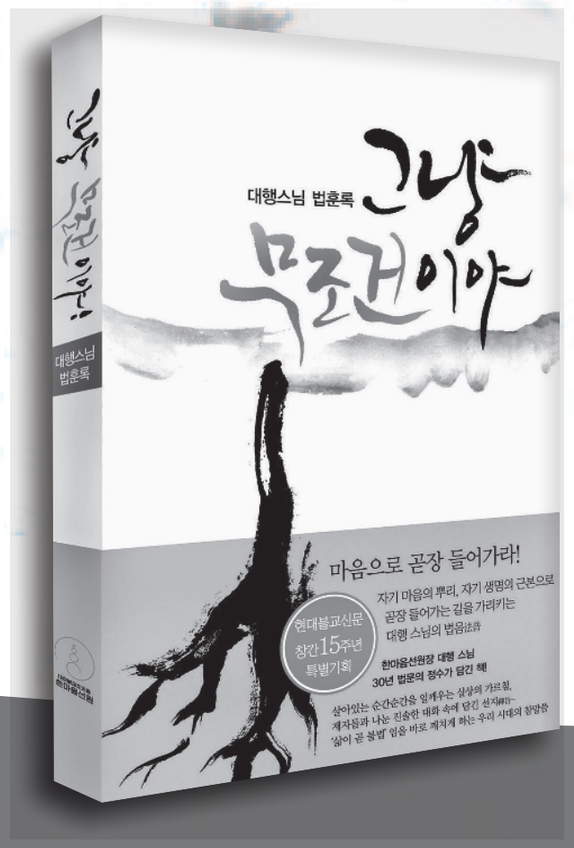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여러분이 부처를 만들 수도 있고 악연을 만들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던 모양입니다. 코끼리를 타고 어느 강가에 나오셔서 자기 대신들더러 묻기를, 사람들이 백절 치듯 하는 데서 묻기를 코끼리에서 내려서서 물 먹는 바가지로다 모래를 한 바가지 뚝 뜨면서 "이것은 근수가 얼마가 나가며 코끼리의 근수는 얼마가 나가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대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가 인군의 대를 내리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웅성거리고들 말을 대는데 아무 소리 않고 인군은 그저 고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서 있으려니까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고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그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코끼리는 한 근이 나가고 이 모래 한 바가지는 무 근입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군은 그 소릴 듣더니 말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싱그레 웃고는 입만 한 번 딱 벌렸다 오므리고는 영 아무 소리 없더랍니다. 그러고선 손만 이렇게 쳐들고서는 코끼릴 타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러니 이분은 아무것도, 보시금도 없이 그냥 절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스님께서 "너는 어떠한 보시금을 타고 너는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니까 낱낱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금도 못 타 가지고 온 스님은 아무 소리 없이 말입니다, 두 양말을 벗더니 하나는 발을 딱 오므리고 하나는 쭉 펴서는 발바닥을 세 번을 긁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계시다 하는 말이 "저 발바닥 긁는 놈 보시금이 많으냐, 너희들 보시금 가져온 것이 많으냐?" 하고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우리가 보시금 가져온 것이 많지 아니, 하나도 타 오지 않은 사람이 뭐가 많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보시금이 제일 많으니라. 저렇게 많은 보시금을 타 가지고 왔으니 당최 무 근이지." 하시면서 "저렇게 보시금 타는 사람이라야 기우제를 지내더라도 땅을 갈라지게 하지 않느니라." 하시거든요.

그랬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요새도 태풍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해마다 태풍이 오고 또 막중한 손해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중략)

이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물질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문제, 기계화로 아무리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이, 즉 말하자면 생명은 있되 생물이 형성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에,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태풍도 이것이 꼭 태풍이 있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괜히 아무 소용 없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태풍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한 번 만남에 의해서 사랑을 한다면 그걸 우리는 하루로 칩니다, 일 년이라면. 그러면 하루에 딱 한 번 만남에 의해서 하나는, 여자는 땅으로 내려오고 남자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 번 딱 부딪쳤다가 한 번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생물이라는 존재에 영양소를 넣어 주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엔 없습니다. 영양소를 넣어 주지 않으면 이 생물이 내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결론 아래, 즉 말하자면 영양소를 넣어 주는 반면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진화, 즉 말하자면 땅에서 노는 거는 떠나서, 물에서 노는 생물이 진화하는 데에 이게 아주 100%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만남에 의해서 사랑하고 서로 헤어지는 데에 많은 물과, 즉 말하자면 바람과 또 전력의 흐름과 기체, 모든 이것이 한데 합쳐져서 그냥 불어 나가는 데는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에 있는 생명들이나 전체 무정물이나 이 지금 생물들의 문제를 어떡하면 줄일 수 있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삼십 년 안으로도 많은 걸 줄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요의하다면 삼분의 일, 아니 반, 삼분의 이는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은 앉아서 이렇게 보당을 눌러서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싸움도 하고 별거 다 하게끔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국 불교도 인제는 몸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거를 눌러서 할 수 있는 기계화가 돼 있다면 눌러서 할…. (녹음 안됨) … 다섯 개가 한데 합치면 수레바퀴가 구를 수 있어서 그걸로써 다 할 수 있다는 문젭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가 없는 빛보다 더 빠른 게 되기 때문에 그거 누르는 거보다도 더 빠르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착오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참, 보배 아닌 진짜 보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풍을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강가로 돌아 돌아서 이것이 가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피해를 끼친다 이런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어요. 조금 작게 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이 없으면 아주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네 살림살이하는 데에 만약에 똑바로 하지 못하면 망하는 수도 있고 똑바로 하면 흥하는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태풍은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그러한 영향이 미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진화력에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물에서 노는 생물들이 만약에 물에서 노는 동물로서 화해 가지고 인간으로서 화한다면 그게 연쇄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관이 있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도 지수화풍으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서 속이 상할 때는 참고 참다가 속이 펄떡 일어나면 그냥 막 내던지고 막 부수고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손해를 많이 보죠. 그리고 몸뚱이도 뭐, 막 부딪고 때리고 이 야단이 난다면 더욱더 손해가 나는 거죠. 이것도 태풍입니다, 한 가정의 태풍. 바로 불이 일어나면 바람이 이니까 그냥 그냥 같이 섞여서 태풍이죠. 뭐, 그것만 태풍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도 태풍이 있으며 한 나라에도 태풍이 있고, 태풍 아닌 태풍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태풍들을 어떡하면 우리가 자유자재로 가라앉힐 수 있고 뜨게 할 수 있고, 또 '이 배가 너무 만원이 된다면 참 살기가 어렵다' 하면 어떠한 종류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러한 자유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지금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걸 안 하면 앞으로는 참 살기가 어렵다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인제는, 앉아서 기계화로서 보당을 누르는 것도 내 주먹 안에서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어야 그걸 리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바로 이 자리에 태어났으니까 어쩝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 될 가능성이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부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악인을 만들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대무변한 법은 이루종차 가면 갈수록 너무나 갖은 각색으로, 천차만별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과거다 미래다 할 것도 없이 바로 삼심이 일심이요, 일심이 삼심이요, 이렇게 일심마저도 일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니라. 진리니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어떻게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으며, 이것을 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우리가 체험을 안 해 보고는 더디다, 이르다 이것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걸 낱낱이 알려면, 소(牛)의 과정을 한번 본다 하더라도 그거 한 사흘은 있어야 되겠다.' 이랬는데요,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야, 그렇게 사흘씩이나 보낼 게 없지 않나. 사흘은 우리가 사흘이지 사흘이 무슨 이름이 박아진 사흘인가?' 여직껏 살아나온 마음, 여러분도 여직껏 살아나온 거, 철이 들어서 살아나온 거, 철몰라서는 부모들한테 들은 거, 그런 게 다 잠재의식에 뭉쳐 있죠? 다 아시죠? 몇 해 전에 사신 것도 아시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몇 해 전에 산 거까지도 다 알게 돼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즉 말하자면 숙명통이라 합니다. 이 숙명통을 안다 해도 도가 아니라고 했으니 얼마나 심오합니까? 도라는 이름 없는 도가. 글쎄, 숙명통을 그 사람한테 딱,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그냥 한 찰나에 알아내는데도 그게 도가 아니랬어요. 이러니 참 너무 광대하죠.

그러니 줄이고 늘리고 하는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차차…, 또 앞으로의 태풍에 대한 문제도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보다 더 빠른 연구는 없습니다. 연구들 하기에 바쁜데, 모두 지금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전자의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의 선조들이 하신 방편을 가지고 지금 붙들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싸우는 식인 거죠. 지금 뭐, 앞으로 과학자들의 앞장을 서야 될 텐데 몇백 년 전 거 가지고선 지금 스승을 삼고 뭐 하고 읽고 배우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것이 한데 합쳐진 주춧돌이요, 주춧돌에 의해서 거름이 되는 것이요, 거름에 의해서 우린 지금 실천을 해야 하는 시대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이건 죽은 불교지 산 불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분별을 못 하고 한 발짝 떼 놓지도 못한다면 그건 병신이고 목석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분별을 못 하고
한 발짝 떼 놓지도 못한다면
그건 병신이고 목석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부처 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단 몇 분이든 많이 오시든 나는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좀 더 자유스럽게, 집에서 어떤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의심 내지 말고 바로 그냥….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내 주장자 하나를 탁 던지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수효는 그대로 만 개가 될 수 있고 천 개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들일 수 있고 맘대로 낼 수 있고 거둘 수 있고, 이것저것으로 변모될 수 있고 다양하게 환경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만능인 우리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법인데도, 팔만대장경인데도 그것을 다 도랑도랑 읽기만 했지, 또 금강경을 도랑도랑 읽기만 했지, 뭐, 몇 독을 했다던가요? 몇 독을 하면 뭘 합니까? 그 뜻을 알아야죠. 하나의 뜻을 알면 열 가지 뜻을 알아. 백 가지 뜻을 알고. 그렇듯이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이 한 찰나에 전부 알아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융성한다고 했습니다. 왜? 경제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그런데 요새 살림살이는 조금 세련돼 가고 있죠? 한 가정이라고 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새 조금 세련돼 가요. 그것뿐입니까, 어디? 과학적으로도 조금 세련돼 가고, 또 국고를 다지는 데도 과학적으로 국고를 다지게 돼서 참 천만뜻밖으로 감개무량하고요. 그것이 어디의 힘이 바로 미치는가? 우리들의 마음의 힘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아니, 이쪽이 강대국이다 저쪽이 강대국이다 하면 여기서는 이거를 해 놓고 저기서는 저거를 해 놓고 몰래 하느라고들 열났지만 그게 몰래가 안 되죠. 만약에 우리 못난 사람들, 여기 나와 더불어 같이 못난 분들이 진짜 못난 분들이라면 그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어요, 천만 리라도. 갈빗대가 몇 대가 있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속이려야 속일 수 있나요?

그런 멋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유인이요, 멋진 분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고차원적인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첨단을 뛸 수가 있습니다. 빛보다 더 빨리 뛸 수가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고 올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끝마칠까요?

※위 법문은 1986년 8월 30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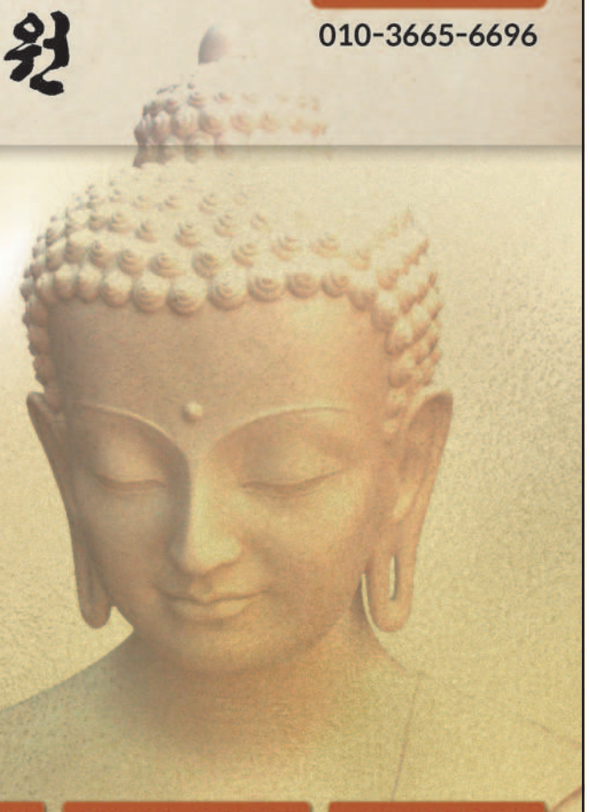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착한 사람

짜증나는 것, 화나는 것, 누가 미운 것을 안좋게 보지 마세요. 안좋은 것을 보고 나는 착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더 힘들어요. 그냥 허용하세요. 담담하게 지켜보세요. 자신의 못된 성향과 싸우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아집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항상 착해야 된다는 강박이 힘들어요. 본성은 착하지만 늘 착한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자신의 이기적인 성향을 인정하고 착하다는 오해와 집착을 버리세요. 늘 착할 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저는 못됐어요. 얌체입니다. 착한 척 할 필요 없는 행복한 얌체입니다. 하지만 늘 선한 사람이 되기를 늘 발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⑮ 수미산– 카일라스 코라 순례

걸음걸음마다 나를 내려놓다

카일라스 북면 설산 감동받아
돌마라고개 고행길 자신 반추
순례 끝자락엔 성취감이 가득

어둠 속에서도 장엄한 카일라스 북면은 순백의 영혼으로 빛나고 있었다. 새벽 3시경 손전등을 들고 공중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오, 카일라스여!"라는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난생처음 접하는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카일라스 북면의 설산이 어둔 밤의 빛처럼 휘황한 자태를 뽐내며 무언의 설법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해발 5,210m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들의 대향연에 넋을 빼앗긴 채, 그저 침묵하며 경외와 찬탄을 다할 따름이다. 온 우주에 오직 나 하나만이 이 성스러운 밤에 깨어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미 힌두 순례자들이 시바신을 찬탄하며 기도와 명상을 하고 있다. 나도 그 옆에 조용히 정좌하고 내 안에 수미산 하나 들여 놓는다. 정말이지 이 순간,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의 충격과 전율에 사로잡혀 행복한 마음이다.

아침 공양 후 대중공사가 벌어졌다. 안전을 위해 하산할건지 아니면 계속 순례를 이어갈 건지 결정하기 위함이다. 난상토론 끝에 스님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하여 11명의 스님들은 하산을 하고, 나머지는 4개조로 나누어 순례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솔직히 그 순간에 내 안의 악마가 "너도 내려가, 그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어"라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소임자인지라 길에서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중단 없는 전진을 선택했다.

둘째 날의 여정은 카일라스 순례길 중에 가장 어렵다는 돌마라 고개(5,640m)를 넘는 난코스이다. 끝도 없는 오르막길을 올라야 한다. 문득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이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라는 옛 시조가 생각이 난다. 다만 가고 또한 가다보면 어느새 내 발밑에 서리라 다짐하며 순례길에 오른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세 걸음에 한번 쉬던 것이, 한걸음 떼어 놓기가 그야말로 천근만근에 속수무책이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지라, 지난날의 허물과 나태를 돌이켜 반성하게 된다. 해탈고개에 이르러서 옷가지며 온갖 물품을 내려놓은 자리에, 내 지난 과거의 허물과 욕망의 찌꺼기들을 함께 내려놓아 버렸다. 중국의 작가 위화(余華)는 그의 소설 '살아간다는 것(活着)'에서 "인생이란 무거운 등짐을 진채, 머나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그러니 가고 또한 갈 따름이다.

'부모효경점(父母孝敬点)'에 이르러 입적하신 원담 노스님과, 은사이신 법장스님, 그리고 친부모님의 명복과 왕생을 빌었다. 아울러 진관, 흥륜, 수연 노스님과 태연, 명선 스님 등을 기억하고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은사이신 법장스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항상하는 허공과 바람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는다.



비구니 스님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수미산을 오르고 있다.

돌마라 고개 못 미쳐서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을 때였다. 어떤 비구니 스님이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성스럽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다만 화두 하나를 든 채 묵묵히 걷는 스님의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그동안 꼼짝도 않던 카일라스가 스님의 발걸음에 맞춰 조금씩 움직이는 듯 하다.

이에 졸시 하나를 지어 찬탄하노니 "수천 수만의 히말라야 설산마다/ 수천 수만의 우담바라 피어나고/ 수천 수만의 연꽃마다/ 수천 수만의 부처라네.// 그 가운데 한 스님의/ 가이없는 저 발자국,/ 한발 두발 자국마다/ 연꽃들이 피어나네// 한 스님의 발길이여,/ 온 우주가 깨어나서/ 연꽃송이 피어나고/ 수미산이 함께 걷네" 나는 한 비구니 스님과 그의 발걸음에서 수미산보다 더 크나 큰 자비와 평화, 그리고 그 순간에 찰나에서 영원을 보았노라!

돌마라 고개에 이르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순례길이다. 몇 번이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드디어 마지막 젖 먹던 힘을 내어 돌마라 고개 정상(5,640m)에 올랐다. 마치 천상의 화원이나 혹은 화장찰해에 이른 느낌이다. 순백의 설산아래 오색의 타르쵸가 펄럭이니 그 곳에 누운 채, 벅찬 감격과 희열에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정말이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이다. 내 자신에게 "정말 수고했어, 사랑해"라고 말해주고 싶다.

돌마라 고개 정상에서 법련사 진경스님이 감격에 겨워 대중들에게 찬불가 한 자락을 멋지게 노래한다. "부처님,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저 이제 합장하오니 이 원을 들으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노래와 카일라스가 어우러져 감동과 환희심이 이는 최고의 무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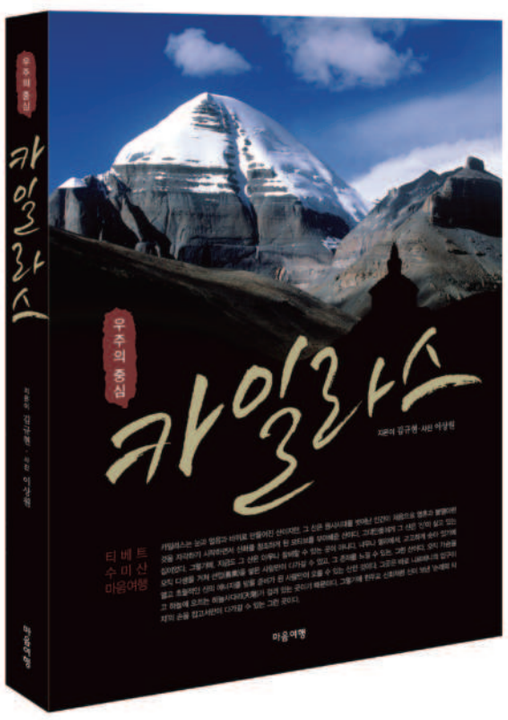
이제 다시금 하산할 시간이다. 양희은의 '한계령'처럼 카일라스는 이제 내게 내려가라고 한다. 다시 한번 돌마라 고개의 풍광을 360도 파노라마로 내 가슴에 영원히 저정한 채 내리막길을 따라 하산한다. 마치 미당 서정주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이란 시처럼, '섭섭하게, 그러나 아조 섭섭지는 않게' 수미산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 왠지 가슴 한 켠이 텅빈 충만으로 행복하기만 하다.

늦은 점심 후 알룽창포 강줄기를 따라 산책하듯 돌길을 걸어서 밀라레빠가 수행하던 쥬틀북 사원(4,810m)에 도착해 근처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다. 모든 이들의 얼굴과 가슴마다 무언가 필생의 일을 성취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과 환희, 그리고 감사와 찬탄이 함께한다. 카일라스 영봉은 얼굴을 감춘 채 구름 속에 자리한다.

마지막 날은 알룽창포 강을 따라 산책하듯이 한결 편하고 수월한 순례길이 이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순례 종착지에 도착해 마니석 담장 앞에서 감동과 눈물의 회향식을 가졌다. 순례 대중스님네 모두가 카일라스 코라 순례를 무사히 마친 감격과 희열에 서로 부둥켜안고 펑펑 눈물을 흘린다. 이는 오직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느낄 수 있을 뿐, 감히 그대에게 가져다줄 수는 없는 것이다. 저마다 가슴 속에 카일라스 수미산 하나씩 담아가니 더없이 행복하기만 하다.

〈조계종 교육부장〉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스러움에의 열망과
영감의 근원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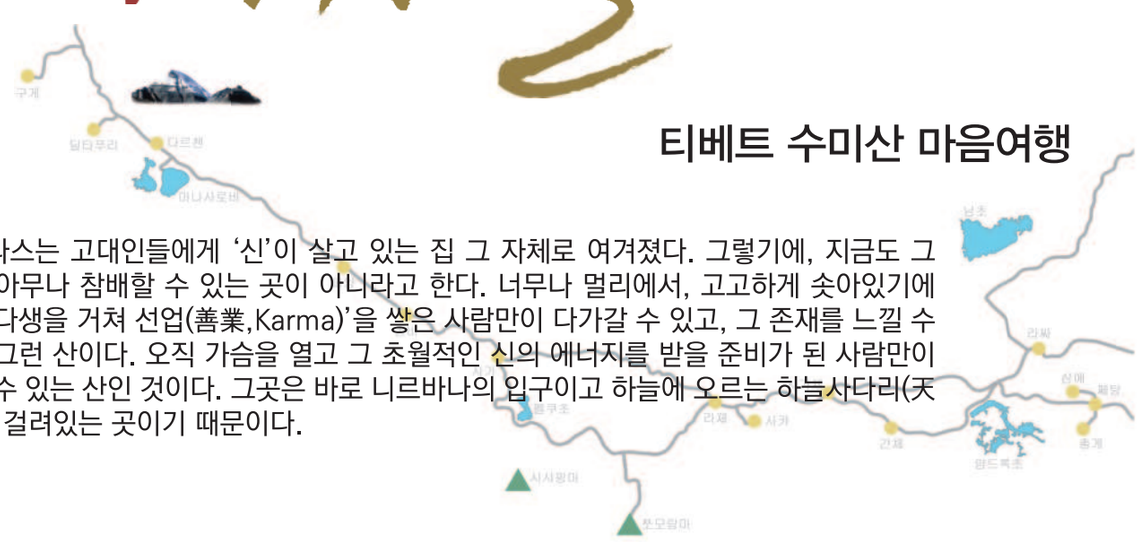


수미산 신앙의 진원지로 알려진 이 산을 향해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뵌뽀교 등 4대 종교의 교도들은 이 산의 신성에 대한 숭배와 찬양으로 이곳으로 모여들어 온 몸을 던져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참배를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생의 죄업을 정화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통과의례로 삼는 전통을 세워 내려왔다.

지은이 **김규현** · 사진 **이상원**
펴낸곳 **마음여행 실크로드**
크라운판 / 304쪽 컬러 / 값 25,000원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티베트 수미산 마음여행



카일라스는 고대인들에게 '신'이 살고 있는 집 그 자체로 여겨졌다. 그렇기에, 지금도 그 산은 아무나 참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 너무나 멀리에서, 고고하게 솟아있기에 오직 다생을 거쳐 선업(善業,Karma)'을 쌓은 사람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이다. 오직 가슴을 열고 그 초월적인 신의 에너지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산인 것이다. 그곳은 바로 니르바나의 입구이고 하늘에 오르는 하늘사다리(天階)가 걸려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 전화 02-720-9600 홈페이지 www.maumtour.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S&S빌딩 901호



위빠사나에 기반한
통합수용치료 기법!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지켜보라

위빠사나 명상의 핵심 수행 원리인
'알아차림과 평정심'을 상담에 적용!

인지와 정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수용하여 치료하는 최초의 시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자기치유 프로그램 소개!

어정현 지음/신국판/312쪽/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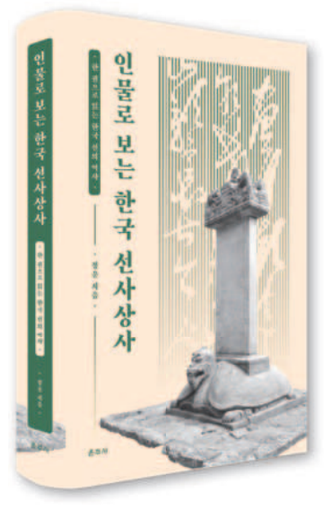
한 권으로 읽는 한국 선의 역사!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사

1,600여년 한국 선의 역사를 톺아보다!
선의 전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사들의 행적과 사상을 통해 한국선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미래를 성찰하다!
옛 선사들의 사상과 발자취를 통해 역사적으로 한국선이 지향하고 추구해온 바가 무엇인지를 포착하였다.

풍부한 사진으로 현장감을 높여주다!
저자가 오랜 시간 직접 찍은 200여 컷에 이르는 자료 사진을 수록하여 이해를 돕는다.



정운 지음/신국판 양장/전면컬러/544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2020 정기개편

광우스님의
소나무
소 중 한 나 무 한 행 복

수요일 11:30, 20:00, 일요일 08:3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